

저 태양처럼...쫓구쳐라, 한국 경제



다사다난했던 2019년을 뒤로하고 2020년의 첫 태양이 힘차게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한국 경제는 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수출규제, 정치 불안 등 내외외환으로 고전했다. 경자년(庚子年) 새해에는 대한해협의 무역선 옆으로 솟아오르는 붉은 태양처럼 우리 경제가 도약하기를 기대해본다.

부산=신태현 기자 holjjak@

2020 글로벌 경제 화두 ‘T·E·R·M’

세상을 바꾸는 뉴 트렌드

① 경제 항방 가를 ‘4대 이슈’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몸살’

美·中 무역갈등 2라운드 촉각

11월 美 대선·통화정책도 변수

2020년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다. 2019년 기해년(己亥年)은 ‘황금돼지의 해’로, 재물이 넘치고 큰 복이 올 것이라던 기대와 달리, 경기 둔화와 불확실성으로 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았다. 그러나 어두웠던 어제의

태양은 지나갔다. 2020년 흰쥐의 해인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우리를 비추고 있다. 새해를 맞아 이투데이는 올해 글로벌 경제의 키워드로 ‘텀(T·E·R·M)’을 꼽았다. T·E·R·M은 올해 세계 경제의 항방을 좌지우지할 4대 빅 이슈를 의미한다. △무역전쟁(Trade war) △미국 대선(presidential Election) △글로벌 공장 이전(factory Relocation) △통화정책(Monetary policy) 등이 바로 그것이다. ▶관련기사 4·5면

‘Term’이라는 단어가 새로운 학기를 뜻하는 만큼 올 한 해에는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처럼 걱정스런 마음은 잠시 뒤로 미루고, 설레고 활기찬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고자 하는 염원이 담았다.

2020 경제 키워드 ‘TERM’

T

Trade war

미·중, 미·EU 무역전쟁

E

Election

한국 총선·미국 대선

R

Factory Relocation

글로벌 공장 이전

M

Monetary Policy

통화 정책

먼저 국가 간 무역분쟁 이슈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장장 17개월간 세계 경제를 위협하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지난달 ‘1단계 무역 합의’를 이루면서 휴전 상태에 돌입했지만, 몇

가지 불씨와 불안 요소들이 남아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

11월 미국 대선 또한 눈여겨봐야 할 주요 이벤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월가 전문가들은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다면 △무역전쟁 심화 △감세 2.0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교체가 주저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과 경제 성장 둔화로 저물어가는 ‘세계의 공장’ 중국과 공급망 전환으로 혜택을 입은 베트남, 인도, 대만, 말레이시아 등 새롭게 그려진 ‘글로벌 신(新) 공장지도’ 역시 올해 주요 이슈 중 하나다.

또 지난해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하에

나섰던 연준과 ‘비둘기 떼’로 변신했던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올 한 해에는 어떠한 통화정책을 들고나설지도 주된 관심사 중 하나로 꼽힌다. 연준은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상태다. 변효선 기자 hsbyun@

신년 특집 지면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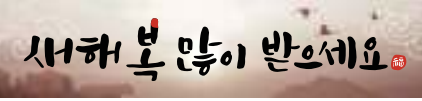
폴씨에서 1등 ‘中 간편결제’ 11

글로벌 ‘K-브랜드’를 찾아서 12

경자년 증시 대전망 13

사모펀드 M&A시대 明과 暗 1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라서
좋은 새해입니다

마음껏 꿈꾸고
서로의 희망을 나누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드는
2020년이 되길 기원합니다

SAMSUNG



문 대통령 “국민께 보답하는 한 해 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국민과 함께 희망을 품고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한다”며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밝고 더 행복한 새해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따뜻하고 뜨거운 국민이 있어 늘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20년, 국민께 보답하는 한 해가 되겠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이겨내며 소중하게 틈낸 변화의 싹을 새해에는 확실한 성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함께 잘 사는 나라,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향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경제로 새 활력 마련” “성장잠재력 확충 토대 구축” “低성장 예상, 통화 완화 유지”

이낙연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우리나라는) 디지털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면서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신년사를 통해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국가의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에 따를 불평등 확대 같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더 따뜻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한반도의 불안한 평화를 안정되게 정착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모든 국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가 지혜를 내고 마음을 모아야 한다”며 “그렇게 되도록 함께 노력하고, 정부가 더 분발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총리는 2020년이 평화와 민주주의 측면에서 의미 있는 한 해란 점도 밝혔다. 그는 “새해는 6·25전쟁 70주년, 4·19혁명 60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이기도 하다”며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선대의 희생을 기억하고, 선대의 염원을 실현하자”고 당부했다. 2019년에 대해선 “내외 여건이 몹시 어려웠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전체적으로 고용과 분배가 개선됐다”며 “약자를 돕는 사회안전망이 보강됐고 벤처 투자 역대 최고, 바이오 등 일부 신산업 약진 등 국가경쟁력도 올랐다”고 평가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반드시 경기 반등을 이루고 성장잠재력 확충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약속대로 경제 회복과 도약의 모멘텀 기회를 반드시 살려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00조 원 투자프로젝트, 방한 관광객 2000만 명 시대, 제2벤처 붐 확산, 사회안전망의 촘촘한 보강,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육성과 미래 대비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며 “구조혁신을 통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 총요소 생산성 향상도 매우 중요하다. 인구구조, 가구구조, 소비패턴 변화 등 구조적 변화에 이제 답을 내놓아야 하고 산업혁신, 공공혁신 등 5대 구조혁신 작업에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경에 연비어약(鸞飛驒躍)이라는 말이 있다. ‘조화로운과 이치에 따름’을 강조한 말이기도 하고 또한 ‘술개의 하늘 솟음과 물고기의 수면 차기와 같이 힘찬 기상’을 나타내기도 한다”며 “연비어약의 급기처럼 우리 경제의 갈등 현안들이 조화와 이치에 따라 풀리고 술개, 물고기처럼 경기 반등·경제 도약을 이루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



“우리나라가 가장 주력해야 할 과제는 혁신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1일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진전을 고려할 때 양적 투입 확대와 같은 종래의 방식으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어렵다”며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이 창의적 혁신역량을 발휘해 투자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율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방침이다.

이 총재는 “올해 국내경제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하회하고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이 약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완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는 대외 리스크 요인 전개와 국내 거시경제 흐름, 금융안정 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강국 길 개척할 것” “농산물 가격 급등락 최소화” “소부장·신사업 성과 가시화” “포용적 복지정책 내실화할 것”

최기영 과기부 장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31일 “인공지능 강국의 길을 개척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지난해 세계 최초 5G 개통과 일본의 수출규제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보통신인의 헌신과 노력, 역량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새해에는 국가 과학발전 미래비전인 AI 기술 개발에 헌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새해 개인기초연구비 2조 원 달성을 기반으로 더 좋은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변화, 발전시켜 신시장 조성을 촉진하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과 같은 중장기적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최 장관은 ‘사람’에 더 초점을 맞춰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1일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와 관련한 농업인들의 걱정을 공익직불제로 해쳐 나갈 수 있다”며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관련 예산 2조4000억 원을 확보했다. 6개로 나뉘어 운영하던 직불제를 하나로 통합해 쌀 이외의 작물 재배 농가와 형평성을 맞추고, 중소농가의 소득 안정을 추진한다.

농산물 가격 안정화에도 나선다. 김 장관은 “지자체와 농업인 스스로 생산과 가격을 조절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은 의무자조금 단체를 확대 나가겠다”며 “가격이 급등락할 때에는 출하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계약재배사업과 자조금도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1일 “(새해)실물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소재·부품·장비 및 신산업 정책의 성과를 가시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부·장비산업도 100대 핵심품목 공급을 안정화하는 한편 역대 최고인 257조 원 이상의 수출금용으로 신시장 개척을 뒷받침하고 신산업·소비재·서비스의 수출품목 지원을 통해 수출 플러스를 조기에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주력산업과 신산업 분야에서 상대국과 우리의 강점을 결합하는 상생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FTA 네트워크를 신남방·신북방 중심으로 확대해 시장 다변화를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적 추세인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도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그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및 일자리 확충으로 소득분배가 다소 개선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아직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포용적 복지정책을 더욱 내실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복지부 예산은 82조5269억 원으로 정부 개별 부처 단위에서 가장 큰 규모”라며 “이는 복지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해에는 “우리 주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국가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제때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꼼꼼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40대 고용·제조업황 개선 지원” “공적임대주택 21만 호 공급” “해운산업 매출 40兆 달성” “中企·벤처로 자금 물꼬 트겠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1분기 중 40대 고용실태에 대한 종합분석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함께 ‘40대 고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대책으로 40대 특화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에도 포함하면서, 40대 맞춤형 고용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현장의 노동시장 수요측면도 함께 분석해 40대가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안과 함께 제조업, 건설업 등 주력산업 업황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새해에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고용·노동 정책의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나와 모든 직원이 함께 힘을 모으겠다”며 “단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각오로 맡은 임무에 더욱 정성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고 주거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청년, 신혼부부, 비주택 거주자를 위해 올해 공적임대주택 21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올해는 경제 활력, 혁신, 포용, 공정성의 네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려고 한다”며 “특히,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부 재정이 중요한 만큼 올해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저성장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돼줄 스마트 건설, 드론, 자율차, 스마트 시티 등 혁신 기술을 고도화하고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산업 전반의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31일 “해운산업 매출액 40조 원을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자원과 공존하는 기업관 패러다임을 정착시키고 꾸준히 성장하는 수산식품산업을 토대로 수산물 수출액 26억 달러를 달성하는 한편 수산 분야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자율운항선박, 이네비게이션(e-Navigation), 스마트 항만과 스마트 양식 등 4대 핵심 선도사업에 박차를 가해 해양수산 전 분야에 4차 산업혁명 DNA를 심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양바이오, 해양로봇과 스마트 장비 산업 등 해양수산 5대 핵심 신산업도 전략적으로 육성해 2030년까지 11조 3000억 원 규모의 해양수산 신시장을 창출하고 매출 1000억 원 이상의 오션스타 기업을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1일 “가계 보다는 기업으로, 특히 중소·벤처, 그중에서는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이 있는 생산적인 곳으로 자금의 물꼬를 대전환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자금이 생산적인 실물경제보다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면서 경제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은행 예대율, 증권사 NCR 규제 체계의 개선으로 가계나 부동산보다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게 만들 제도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12·16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부동산 PF 관리 강화 등 각종 대책의 안정적인 집행으로 부동산시장의 율리현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다.

깨어나는 '수출 코리아'... 기업심리, 1년 반 만에 최고

韓銀, 12월 제조업 BSI

경제에 여명이 밝아올 조짐이다. 기업 실적심리는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향후 전망심리도 동반 상승했다. 특히 수출 기업 전망은 반도체 호조 등 기대감에 힘입어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경제심리도 두달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경제심리에서 계절 및 불규칙 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치도 넉 달 연속 반등세를 지속했다.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조업 업황실적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월 대비 보험인 7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6월(74) 이후 최고치를 이어간 것이다. 비제조업 업황실적 BSI는 3포인트 올라 78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6월(80) 이후 최고치다.

이에 따라 전산업 업황실적 BSI는 2포인트 상승한 76을 나타냈다. 역시 2018년 6월(80)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BSI란 기업가의 현재 기업경영 상황에 대한 판단과 향후 전망을 조사한 것으로 각 업체의 응답을 지수화한 것이다.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긍정 응답 업체수가 부정 응답 업체수보다 많음을 뜻한다. 반면 낮으면 그 반대 의미다. 다만 부정적 답변이 많은 우리 기업 특성상 장기평균치 80 전후를 암묵적 기준으로 보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는 8포인트 상승한 80을, 금속가공은 4포인트 오른 67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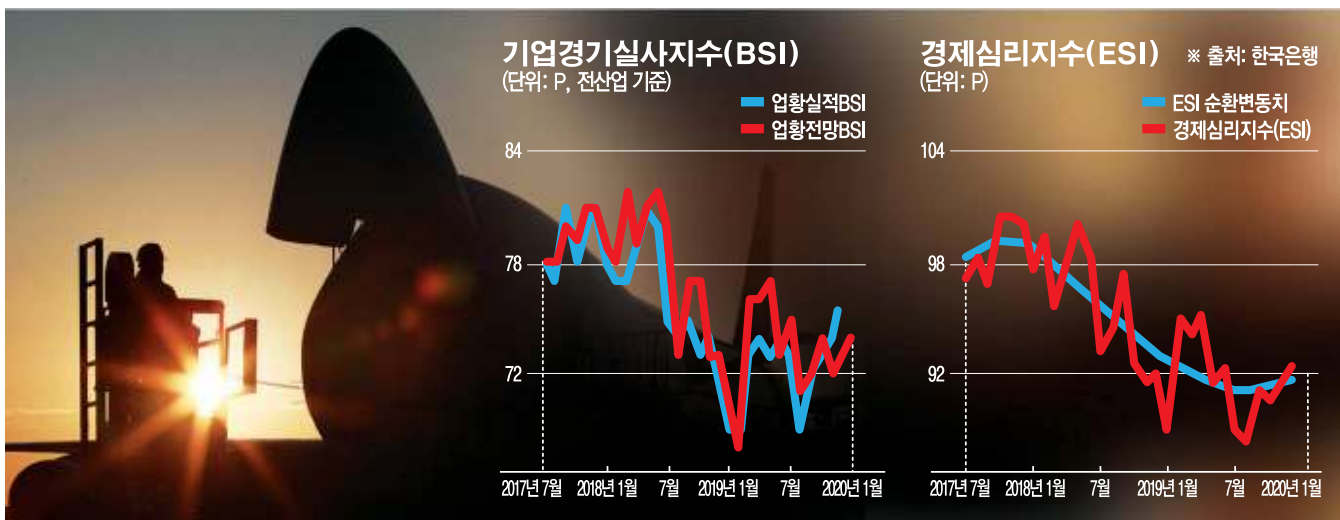
기업 체감경기, 4개월째 회복세
수출지수 10개월째 최대폭 상승
경제심리도 6개월 만에 최고치

했다. 각각 신차 출시효과와 이에 따른 자동차 프레임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토목건설 수주가 증가한 건설업은 8포인트 상승한 74를 보였다. 운수창고업(83)은 연말 택배 수요에, 정보통신업(93)은 연말 공공부문 시스템통합 등 정보통신(IT) 수요에 각각 7포인트씩 올랐다. 반면, 전자·영상·통신장비는 디스플레이 관련 전자부품 판매 부진에 2포인트 떨어진 79를 나타냈다.

향후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지난해 1월 업황전망BSI를 보면 제조업은 2포인트 오른 73을, 비제조업은 1포인트 상승한 75를 기록했다. 전산업도 1포인트 올라 74를 보였다.

업종별로 보면 전자·영상·통신장비는 반도체 가격 상승 기대감에 7포인트 상승한 83을 기록했다. 금속가공(65)과 건설업(70)은 각각 실적 상승과 같은 이유로 4포인트와 7포인트 올랐다. 운수창고업 역시 설명절 택배수요 기대로 6포인트 오른 82를 나타냈다.

제조업 부문을 기업 규모와 형태별로 보면 우선 지난해 12월 실적에서는 대기업(80)과



항공 화물 적재로 분주한 인천국제공항 아시아나항공 화물터미널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수출기업(80)이 각각 2포인트씩 오른 반면, 중소기업(68)과 내수기업(70)은 각각 1포인트씩 떨어졌다. 1월 전망부문에서는 내수기업(-1포인트)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올랐다.

특히 수출기업은 8포인트 오른 83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월 12포인트 급등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반도체값 상승 기대감에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부문이 좋은 데다, 비철강 쪽을 중심으로 1차금속

이, 해외건설 관련 굴삭기 등 기타기계 및 장비가 각각 호조를 보인 것이 8포인트 상승 중 7포인트를 차지한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성한 경제심리지수(ESI)는 0.9포인트 상승한 92.4를 기록했다. 이 또한 지난해 6월(92.4) 이후 최고치다.

ESI순환변동치도 0.3포인트 상승한 91.9를 기록했다. 과거 수치가 수정되면서 지난

해 8월(91.1)을 저점으로 반등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호 한은 기업통계팀장은 "주요 8개 지표 중 하락이 하나도 없다. 조금씩이지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3696개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며, 응답 업체는 3270개 업체였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13일부터 20일까지였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반도체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

※ 출처: 한국무역협회

☀ : 150 이상		☀ : 110~150미만		☀ : 90~110미만		☁ : 50~90미만		🌧 : 50미만	
반도체 전체		수출상당	수출계약	수출상품 제조원가		수출단가		수출 재산성	
 (136.1)		 (113.5)	 (138.7)	 (100.1)		 (74.2)		 (126.9)	
수출국 경기		국제수급	수입규제 통상마찰		설비 가동률		자금사정		
 (111.6)		 (137.8)	 (140.8)		 (150.6)		 (112.7)		

※ EBSI는 다음 분기 수출경기에 대한 국내 수출 기업들의 기대를 나타내는 지표. 수출 여건이 전분기 수준보다 좋을 것으로 기대되면 100보다 크고, 전분기에 비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100보다 작은 값을 가짐.

올해 반도체 수요 증가 기대 삼성·SK, 공장 증설·풀가동

EBSI 136.1...수출여건 크게 개선
설비투자 규모도 68兆... 2% 늘어

침체했던 반도체 경기가 올해부터는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이듬해 수급 불균형과 가격하락으로 급격한 다운턴(하강 국면)을 보냈다. 2020년에는 5G(5세대)이동통신과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등으로 반도체 경기 심리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회복되면서 생산설비 투자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2020년 1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를 보면 반도체 산업의 EBSI는 136.1로 전 분기 대비 수출경기가 크게 나아질 전망이다.

EBSI는 다음 분기 수출경기에 대한 국내 수출기업들의 기대를 나타내는 지표다. 수출여건이 전 분기 수준보다 좋을 것으로 기대되면 100보다 크고, 전 분기에 비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100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

무렵은 "반도체 단가 회복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5G 시장 확대 및 주요 IT기업의 데이터센터 투자수요 회복 등으로 수출 여건은 개선될 전망이다"라고 내다봤다.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도 반도체 설비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SEMI는 2020년 반도체 설비투자 규

모가 580억 달러(약 68조 원)에 달해 전년보다 2%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SEMI는 반도체 설비투자 규모 반등 요인으로 3D 낸드플래시와 파운드리 투자 규모 확대를 꼽았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 공장과 국내 평택 공장의 3D 낸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도 청주 M15 공장 설비를 채워 나가고 있다. 또 중국 칭화유니그룹 산하 낸드 제조사 YMT는 지난해 9월 64단 3D 낸드 양산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로직·파운드리 설비투자도 26%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시장은 대만 TSMC와 미국 인텔이 이끌고 있다. 일본 소니가 주도하고 있는 이미지센서 설비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전문 시장조사기관인 IC인사이는 2020년 반도체 생산 증가량이 1790만 장(200mm 웨이퍼 기준)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약 1.5배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1년의 경우 2080만 장의 생산량이 새롭게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치를 달성할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속도조절에 들어가며 생산라인 증설 계획을 미뤘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 확대 계획이 본격화된다는 설명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시장의 다운턴으로 축소됐던 신규 시설 투자와 가동률이 정상 궤도에 오르면서 수익 극대화를 위해 투자와 생산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모두를 위한
SK증권
로보어드바이저

SHAKE는 고도화된 알고리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맞춤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입니다 {by 쿼터백}

※ SK증권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에게는 충분히 그러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위험에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스타트업 투자수요 (주식) 0.15% + 1천원 ~ 0.05% + 1백만원 (거래금액별 차등, 세부 수수료들은 당사 홈페이지 참조)
※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1차 테스트베드 통과
※ 테스트베드 통과가 해당 알고리즘의 품질이나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객접속센터 1588-8245

물가 상승률 역대 최저인데… 낙관론에 빠진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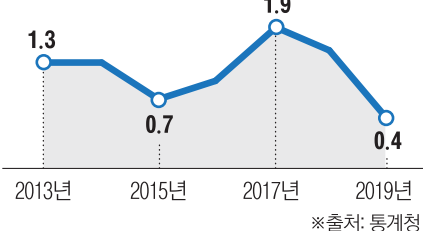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0.4%… 농축수산물 1.7% ‘뚝’
근원물가도 20년 만에 최저… 통계청 “디플레이 우려 안해”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0.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변동성이 큰 폭을 제외한 근원물가도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19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5로 전년보다 0.4% 올랐다. 근원물가인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와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는 각각 0.9%, 0.7% 올랐다. 소비자물가는 통계가 작성된 이래, 근원물가는 1999년 이후 최저치다. 생활물가지수도 0.2% 상승에 그치고, 신선식품지수는 5.1% 내렸다.

품목 성질별로는 상품은 0.3% 내리고, 서비스는 0.9% 올랐다. 상품 중에선 농축수산물이 1.7% 하락하며 총지수를 0.13%포인트(P) 끌어내렸다. 서비스는 집세와 공공서비스가 각각 0.1%, 0.5% 내리고 개인서비스는 1.9% 올랐다. 개인 서비스 상승률도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주요 품목을 보면 △농축수산물에선 돼지고기(-3.9%), 딸기(-19.4%), 무(-25.1%), 마늘(-14.1%) △공업제품에선 휘발유(-7.1%), 경유(-3.9%) △공공서비스에선 고등학교납입금(-13.5%) △개인서비스에선 학교급식

소비자물가 증감을 추이
(단위: %, 전년 대비)



비(-41.2%), 병원검사료(-9.4%) 등이 큰 폭으로 내렸다.

통계청은 올해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이두원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우리 판단으로 최근 채소값 상승이라든지 일부 공산품 출고가 인상이 있어서 그런 걸 반영했을 때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높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하락 요인으로 고교 2학년까지 무상교육 확대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이 있지만, 농산물이나 석유류 같은 경우 기저효과가 사라지면 지난해보다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디플레이션은 크게 우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를 기록했다.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와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는 각각 0.7%, 0.6% 올랐다. 같은 달 물가 상승률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6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2019년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보다 0.4% 상승했다. 사진은 3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신태현 기자 holijak@

은 지난해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품목 성질별로 상품 중 농축수산물은 0.8% 하락하며 내림세를 이어갔으나, 이 중 채소류는 6.6% 오르며 기저효과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였다. 공업제품도 가공식품(1.4%)과 석유류(3.8%)가 모두 오르며 1.1% 상승했다. 서비스는 집세(-0.2%)와 공공서비스(-0.9%) 하락세가

이어지고 개인서비스는 1.6% 오르는 데 그쳤다. 외식 물가도 상승 폭이 1.0%로 둔화했다.

주요 품목을 보면, 배추(60.8%), 무(98.2%), 오이(29.1%) 등 농산물 상승 폭이 확대되고, 공업제품 중 휘발유(6.3%), 경유(3.2%) 등 석유류는 오히려

늘(-23.8%)과 남자학생복(-47.5%), 여자학생복(-44.8%) 등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공공서비스에선 택시료와 시내버스료가 각각 14.8%, 4.2% 올랐으나 고등학교납입금(-36.2%), 휴대전화료(-3.1%)는 내렸다. 개인서비스에선 학교급식비(-57.9%) 하락이 두드러졌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여야 ‘휴전’ 들어갔지만… 남은 패트법안 충돌 예고

‘4+1’ 검·경 수사권 조정안·유치원 3법 등 곧 처리… 野 반발

정쟁을 지속해 온 여야가 연초를 맞아 짧은 ‘휴전’에 들어갔다.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로감이 누적됐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짧은 소강국면이 끝난 뒤에는 재차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분간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애초 민주당은 공수처법 통과 이후에도 임시국회를 1~2일 단위로 쪼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지만, 올해 첫날부터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로 고성이 오가는 모

습을 국민들에게 보일 수 없다는 판단에서 냉각기를 갖기로 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연초부터 국회에서 갈등의 모습을 보이지는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판단”이라며 “시간을 가지면서(자유한국당과)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협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판단에는 소속 의원들이 연시 지역구 행사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는 점 또한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모처럼 국회에 찾아온 짧은 소강국면이 길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중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이달 3일 혹은 6일부터 본회의를 다시 열고 남은 패스트트

랙 법안을 차례로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특특히 효과를 거둔 ‘쪼개기 전략’을 통해 먼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각각 처리한 뒤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유치원 3법을 처리해 국면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있을 예정인 만큼, 짧은 휴식 뒤에는 다시 여야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당은 전날 공수처 법안 표결에 반발해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하며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다른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상징성이 가장 컸던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처리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유충현 기자 lamuziq@

한전, 4억 달러 ‘리파이낸싱’

멕시코 법인 美 증시에 발행

한국전력은 멕시코 현지법인(KST)이 미국 증권시장에 4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본드를 발행해 멕시코에서 운영 중인 노르페Ⅱ 사업 차관 재조정(리파이낸싱·Re-financing)을 달성했다고 31일 밝혔다.

리파이낸싱은 기존에 조달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자금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것으로, 기존 차관을 재조정함으로써 금융 비용을 절감, 사업 수익을 극대화하는 금융 기법이다.

해외 인프라 자산에 대해 국내 기업이 주도해서 한국수출입은행이 보증 부 프로젝트 본드를 발행한 것은 한전이 처음이다. 한전은 프로젝트 본드를 성공적으로 발행해 기존 차관의 잔여분을 모두 상환하고, 투자금 5880만

달러도 상업 운전한 지 6년 만에 전액 회수했다. 또 기존 차관보다 금리를 약 2.5%포인트(P) 낮추고 배당 가치를 높였다.

한전이 지분 56%를 보유한 멕시코 노르페Ⅱ 사업은 삼성자산운용, 테진트와 공동으로 멕시코 치와와에 433MW 규모의 가스복합 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이다.

한전은 “수출입은행과 삼성자산운용, 멕시코 현지법인이 긴밀히 공조하며 투자자들과 끈질기게 협상에 프로젝트 본드 발행을 성사했다”며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기존의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대출 위주에서 한발 나아가 재원 조달의 다양화를 꾀함으로써 글로벌 PF 시장에서 한전의 저력과 브랜드 파워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세종=박병갑 기자 riby@

5년 내 ‘드론택시’ 등 미래 항공모빌리티 실용화

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 개선

2025년까지 드론택시 등 미래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가 실용화된다.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 개선 등 수요자 중심의 항공교통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공항을 지역과 연계해 개별 공항별 비전과 역할에 따라 특화된 공항개발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항정책도 전환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향후 5년간 항공정책의 비전과 전략을 담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년)’을 수립·고시한다고 밝혔다.

항공정책기본계획은항공운송, 안전, 공항개발, 보안 등을 종합하는 항공분야 법정 최상위 계획이다. 그간 대내외 어려운



중국의 드론택시 ‘에항(Ehang)’이 시험 비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건 속에서도 10년간 항공운송 시장은 연평균 8.4%의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또 공항·항공사는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왔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기술융복합, 글로벌 항공시장 동향 등 최근 급격한 정책여건 변화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해 ‘미래항공 글로벌 선도 국가’를 비전으로

5대 목표와 30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전통적인 항공교통의 국가 간·도시 간 운송기능을 넘어 드론택시 등 미래 도심형 항공교통까지 항공운송의 패러다임을 확장한다. 국토부는 2025년 도심형 항공교통 실용화를 목표로 내년 5월까지 안전·사업에 관한 합리적 규제 설정, 수요분석·인프라 구축 등 세부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한다. 아울러 기존 교통연계 도시개발도 도시형 항공모빌리티 중심 토지이용으로 바꿀 계획이다.

차세대 항공기 상용화, 상업항공우주시대 도래로 예상되는 글로벌 초단축 생활권 도래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구상·준비하고 향후 남북교류 활성화 시대를 대비해 항공로 신설, 공항개발, 항공안전·전문인력 교류 등을 추진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주 52시간제’ 안착… 작년 위반 사업장 6.6%

성수기 생산 폭증 탓 일시 위반

지난해 주 52시간제 위반 사업장 비율이 전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19년도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감독대상 303개 사업장(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 중 20개소(6.6%)에서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위반으로 적발됐다. 전년(18.9%)과 비교하면 위반 사업장 비율이 12.3%포인트(P) 하락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주 52시간 초과 인원 비율은 1% 이하가 55.0%(11개소), 10% 이하가 90.0%(18개소)였으며 위반기간은 5주 이하가

17개소로 85.0%를 차지했다.

위반 사유는 성수기 생산 폭증, 성수기 휴가·결원 발생 시 대체투입, 고객사의 생산일정 변경, 강도 정비기간 중 집중근로, 입시생 모집을 위한 주말 고교 방문 홍보(대학) 등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가 많았고, 설비시설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탄력 근로제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미체결, 업무 특성상 구인난과 생산량 조절 어려움(도계업), 근로시간 관리 미흡 등 사유도 있었다.

20개소 중 12개소(60.0%)는 근로시간 관리시스템 개선, 신규채용, 업무절차(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조기 개선했다. 8개소에 대해선 현재 시정기간을 부여했으며, 향후 개선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11

시즌 11 승 달성
PGA TOUR & LPGA 골프웨어 후원선수

고진영 프로 세계랭킹 1위 등극 한국인 최초 LPGA 전관왕 등극

2019 롤렉스 LPGA 어워드 올해의 선수상
앤니카 메이저 어워드 수상
2019 LPGA 투어 상금순위, 평균타수, 다승 1위
LPGA 투어 통산 6승 KPGA 투어 통산 10승
2019 LPGA 투어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
2019 LPGA 투어 ANA 인스퍼레이션 우승
2019 LPGA 투어 CP 위민스 오픈 우승
2019 LPGA 투어 벅크 오브 호프 파운더스컵 우승
2019 KPGA 투어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우승

장하나 프로

LPGA 투어 통산 5승, KPGA 투어 통산 11승
2019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
2019 KPGA 투어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우승
2018 KPGA 투어 CREAS F&C KPGA 챔피언십 우승

임희정 프로

2019 시즌 KPGA 루키 유일의 3승 기록
2019 KPGA 투어 KB금융 스타챔피언십 우승
2019 KPGA 투어 올포유·레노마 챔피언십 우승
2019 KPGA 투어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우승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골프 여자 단체전 은메달

이승연 프로

2019 KPGA 투어 박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우승
2018 KPGA 드림투어 상금왕

허다빈 2019 KPGA KB금융 스타챔피언십 9위	최혜용 KPGA 투어 통산 2승	제니퍼송 2018 LPGA 투어 ANA Inspiration 준우승	김도연 2019 KPGA 기아자동차 한국여자오픈 19위
성지은 2019 KPGA 한세-웨닉스CC 드림투어 14차전 준우승	사라제인스미스 2018 LPGA 투어 U.S. Women's Open 5위	박성호 미디어 프로	

2020시즌, PGA TOUR 김시우 프로 KPGA 김대현 프로 후원 계약 체결!



고진영 프로

장하나 프로

임희정 프로

이승연 프로



PGA TOUR & LPGA 복합매장 대리점 개설 문의 02.2142.7744

서울 롯데 본점/롯데 잠실점/롯데 노원점/롯데 미아점/롯데 김포점/현대 미아점/신세계 강남점/마리아울렛 구로점/도곡점/문정점 인천 아이즈빌점 경기 롯데백화점 중동점/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광명점/롯데프리미엄 아울렛 고양점/신세계 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 파주점/모디아울렛 곤지암점/일산덕이점/김포장기점/안양평촌점/수원영통점/인산현대점/시화점/남양주삼패점 포천송우점/죽전점 강원 AK플라자 원주점/동해점 충청 신세계백화점 충청점/세이대전점/신세계스타일마켓대전점/모디아울렛 대전점/천안쌍용점/청주미평점/청주올림픽점 경상 롯데백화점 대구상인점 현대백화점 부산점/신세계백화점 센텀점/모디아울렛 대구점/모디아울렛 울산점/울산점/모디아울렛 경주점/부산 사상터미널점/진주정촌점/칠곡세븐밸리점/대구성서점/김해진영점/포항점/부산녹산점/해운대점 전라 모디아울렛 순천점/광주상무지점/광주세정점/군산점 제주 제주호텔점

WWW.LPGAGOLFWEAR.COM @LPGAGOLFWEAR



PGA TOUR & LPGA 골프웨어

〈주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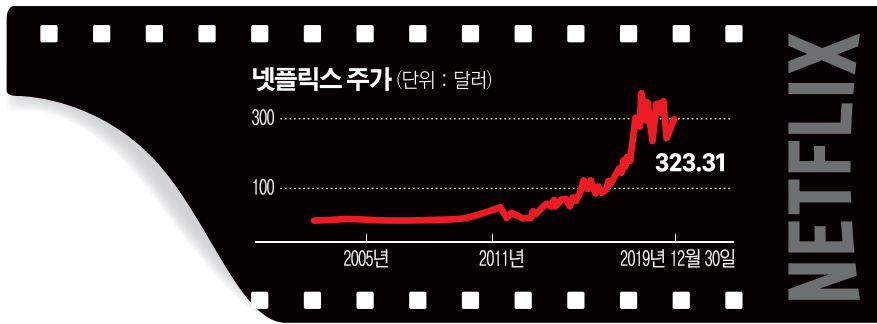
10년간 4080% ↑ … ‘넷플릭스’ 기록 갱 새 유망株는?

美 500대 상장기업 중 상승률 1위
최악 종목은 75% 하락한 ‘아파치’
월가 ‘포스트 넷플릭스’ 찾기 사활

격동의 2010년대, 미국 증시에서 가장
빛난 종목은 무엇이었을까.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하 닛케이)은 미국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업체 넷플릭스를 그 주인공으로 뽑았다. 31일 닛케이에 따르면 미국 S&P500지수를 구성하는 500대 기업의 10년 치 주가 등락률을 집계한 결과, 넷플릭스의 주가는 2009년 말 이후 10년간 4080%(41.8배) 상승해 500개사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최악의 종목은 75% 하락한 에너지 대기업 아파치였다.

신문은 당시 투자자들이 기존 산업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할 ‘디스럽터(disrupter



·파괴자)’의 대표주자로서 넷플릭스를 지한 것이라며 월가에서는 이미 새로운 10년을 향한 차세대 유망주 찾기가 시작됐다고 분석했다.

넷플릭스는 2010년대를 대표하는 디스럽터로서의 자격이 충분했다. 1997년 DVD 대여점으로 출발해 2007년에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했다. 저렴한 정액 요금제와 자체 콘텐츠로 인기를 모았고, 지금은 미국에서만 6100만 명, 해외에

서 9800만 명의 유료회원을 거느린, 그야말로 동영상 스트리밍 업계의 최강자로 우뚝 섰다.

넷플릭스의 부상은 미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비디오 대여 체인 블록버스터를 파산으로 몰아넣은 것은 물론, 미국 케이블 TV 업계 재편의 신호탄이 되기도 했다.

닛케이는 시장이 넷플릭스를 동영상 스트리밍이나 콘텐츠 서비스 업체로만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다. 시장은 넷

플릭스를 ‘기술 기업’으로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창업자 리드 헤이스팅스 최고경영자(CEO)는 컴퓨터 과학 전문가로,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 먼저 깨달은 선견지명이 있었다. 예를 들면, 이용자가 최근에 어떤 작품을, 어디까지 재선했는지 등을 놓고 분석에 분석을 거듭해 개인의 취향에 맞는 작품을 추천하는 식이다. 이런 노력이 고객 만족도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다만, 후발주자들이 우후죽순처럼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 뛰어들면서 넷플릭스의 독주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넷플릭스의 주가는 2018년 6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후 최근에는 박스권에서 보험세를 보이고 있다. ‘콘텐츠 왕국’ 월트디즈니가 넷플릭스에 제공하던 콘텐츠 공급을 끊고 독자 서비스를 시작했고, 아마존과

애플도 자체 콘텐츠 제작에 거액을 쏟아붓고 있다. 넷플릭스에 열광하던 투자자들에게 이런 경쟁 격화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월가는 2020년대를 맞아 향후 10년간 주식시장에 대이변을 일으킬 새로운 종목 찾기에 나서고 있다. 미국뱅크오브아메리카는 2020년대의 투자 테마로 ‘세계화의 종말’, ‘기후변화’, ‘로봇·자동화’, ‘우주’ 등을 선정했다. 실제로, 2010년대의 마지막 해였던 2019년에는 과학 사업가로 알려진 리처드 브랜슨 영국 버진그룹 회장이 이끄는 버진갤럭틱이 우주여행 회사로는 최초로 증시에 상장했다. 신문은 이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이라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자층이 두터워지는 만큼 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저변도 넓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헬로 2020!”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 리허설이 한창인 가운데, 참가자들이 하드록카페에서 날리는 색종이를 맞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에는 약 100만 명이 모일 것으로 보이며, TV 등을 통해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이 ‘타임스퀘어 볼 드랍’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UPI연합뉴스

G2, 세계에 ‘새해 선물’ 안긴다
“다음주 1단계 합의 서명할 듯”

류허 중 부총리, 워싱턴 방문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이 다음 주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류허 중국 부총리가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위해 이번 주 워싱턴D.C.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미국이 중국을 초청했고 중국이 응했다”면서 “중국 협상단은 다음 주 중반까지 미국에 며칠간 머물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도 합의 서명과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놴. 나바로 국장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합의는 이뤄졌고 (합의문을) 가방에 집어넣는 일만 남았다”면서 “(합의문) 번역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도 다음 주에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허 부총리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양측 모두 공식적인 확인을 해주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대중 강경파인 나바로 국장까지 무역합의 서명을 거론하면서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최종적으로 서명식을 가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추이텐카이 미국 주재 중국 대사도 최근 중국 국영방송 CGT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항상 약속을 지키며, 우리가 한 약속은 항상 이행할 것”이라고 밝혀 무역합의 서명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SCMP는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은 오래 지속된 양국 간 갈등의 휴전 선언과 같다고 평가했다. 또 홍콩, 신장과 관련해 미·중 간 고조된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3일 미국과 중국은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했다고 각각 발표했다. 이후 미국은 같은 달 15일로 예정됐던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철회했고, 기존 관세율도 15%에서 7.5%로 낮추는 등 무역합의 서명을 위한 포석에 나섰다. 중국도 무역합의 일환으로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기로 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증시 32% 오른 브라질… 올해도 “파봉!”

반정부 시위 열룩진 남미서 유일하게 ‘팻리’… 올 증시 15% 상승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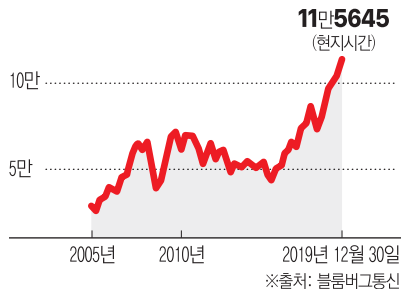
남미 최대 경제국인 브라질이 반정부 시위로 열룩진 남미 대륙의 유일한 희망으로 떠올랐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브라질 상파울루증시의 보베스파지수는 32% 가까이 오른 상태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지수는 2016년 38.93%, 2017년 26.86%, 2018년 15.03%에 이어 올해까지 4년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브라질 증시 팻리가 2020년 새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의 조사 결과, 브라질 증시는 올해 15%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여기에는 브라질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자리하고 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금 개혁과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진 기준금리,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등이 낙관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정부 최대 현안으로 추진하는 연금개혁안은 도시와 농촌 노동자, 연방정부 공무원, 교사 등

브라질 보베스파지수 추이



직종별로 연금 수령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연금 납부 기간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브라질 경제부는 연금개혁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최소 8000억 헤알(약 230조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작년 12월까지 네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해 브라질 기준금리는 1996년 도입 이래 최저치인 연 4.5%로 떨어졌다. 또 브라질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목표로 420억 헤알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힘입어 브라질 경제지표도 호전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브라질 국내

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소폭 성장세를 보였고, 같은 해 9~11월 평균 실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0.4%포인트 낮은 11.2%로 집계됐다.

2020년 경제 전망도 긍정적이다. 지난달 26일 브라질 중앙은행은 2020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상향 조정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해 10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브라질의 2020년 성장률을 2%로 예상했다.

물론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나온다. 브라질 경제 성장률이 2년 연속 예상에 못 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는 다르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2020년은 민간투자가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세계 및 브라질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 탓에 위축된 민간투자는 그동안 브라질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는 요인 중 하나였다. 특히 2019년은 화물트럭 파업과 아마존 대화재 등 어수선한 환경에서 해외 투자가 주춤했고, 경제 성장이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곤 前 닛산 회장, 보석 중 해외 도주

터키 거쳐 레바논行…日 검찰 발각

특별배임죄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일본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카를로스 곤(사진) 닛산·르노 전 회장이 중동 레바논에 나타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일본 검찰이 발각 뒤잡혔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일본에서 도주해 개인 비행기로 터키를 거쳐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 전날 도착했다.

곤 전 회장은 작년 4월 말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그 조건으로 해외 도항 금지 명령을 받았다. 이에 소지하고 있던 여권을 변호인에게 맡겨뒀었다. WSJ는 어떤 경위로 일본을 떠났는지, 일본 당국의 감시를 어떻게 피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곤 전 회장이 일본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믿고 있었고, 결국 도주를 택했다”고 말했다.

곤 전 회장은 르노와 닛산, 미쓰비시 3사의 경영 통합과 합병을 반대하는 내부세



력의 모략에 당했다면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곤 전 회장은 수일 내에 레바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작스럽게 떠나게 된 경위를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에서 태어나 레바논에서 자란 곤 전 회장은 레바논과 프랑스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 다만 가족과 친지들이 레바논에 있고 개인적·사업적 이해관계도 많다.

곤 전 회장은 유가증권보고서 허위 기재와 오만에 있는 지인에게 보낸 돈을 둘러싼 특별배임죄 등의 혐의로 2018년 11월 19일 도쿄에서 체포된 뒤 구속됐다. 2019년 3월 6일에 한 번 석방됐지만, 같은 해 4월 4일 도쿄지검 특수부가 특별배임 혐의로 다시 구속, 이후 같은 달 25일에 5억 엔(약 53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2020년 4월에 열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김서영 기자 0jung2@



지갑을 깜빡해도 걱정없이
손만 대요

통장, 도장, 신분증 필요없이
손만 써요



이제부터 은행 갈 땐 간편하게
손만 댑겨요



[손으로 출금 서비스]
손바닥 정맥 인증 창구 출금 서비스

손으로 출금 서비스로 당신의 일상이 편안해집니다

누리세요, KB가 만드는 새로운 금융생활

세상을 바꾸는 금융 |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b KB 금융그룹**

윤석헌 “소비자 피해 발생 땀 경영진에 책임 물을 것”

금감원장 경자년 신년사

“금융사 내부통제·모니터링 강화
DLF 사태 재발 대책 마련 최선
특사경 활용 자본시장 질서 확립”

윤석헌(사진) 금감원장이 금융회사에서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생기면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겠다고 공언했다.

윤 원장은 31일 경자년(庚子年) 신년사를 통해 “저금리 기조와 핀테크 발전으로 고수익·고위험 상품이 늘고 있다”며 “하지만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은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회사 내부통제가 잘 갖춰졌는지 점검하고, 금감원도 총괄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해 파생결합상품(DLF)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에 맞춰 조직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윤 원장은 “주택시



장이 왜곡되고 가계부채 잠재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정착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 내 부동산 그림자 금융의 리스크 전이와 확산 경로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업 평가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시스템 리스크 요인의 조기 발견을 위해 자본시장 리스크 대시보드를 마련하는 등 금융시장 전반과

거시경제 부문의 진단 수단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무자본 인수합병(M&A)을 악용하거나 익명성을 남용하는 부정 거래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에 부여된 권한을 적극 활용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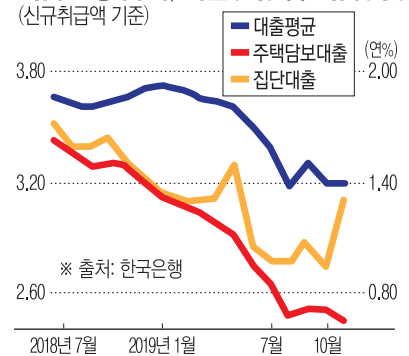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윤 원장은 임직원들에게 전문성을 갖추고 감독 패러다임을 전환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협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 리스크를 짚어낼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며 “최근 디지털화와 겸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금융감독의 패러다임도 변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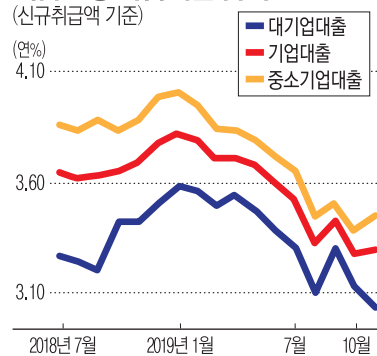
이어 “금융회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소통을 통해 이들의 고충을 좀 더 이해해야 한다”며 “신뢰가 깊어지게 된다면 국내 금융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예금은행 금리, 대출(좌) 및 예금(우)



예금은행 기업대출 금리



주담대 2.45%·대출 금리 3.18% ‘역대 최저’

안심전환대출 정책 ‘훈풍’

한은, 가중평균금리 발표

제2안심전환대출이 대출금리를 두 달째 끌어내렸다. 특히 대출평균 금리와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반면, 집단대출금리는 6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예금금리도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역주행을 보인 탓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11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에 따르면 11월 중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저축성 수신금리는 전월 대비 7bp(1bp=0.01%포인트) 상승한 1.62%를 기록했다. 순수저축성예금은 7bp 상승한 1.62%를, 시장형 금융상품은 9bp 오른 1.65%를 보였다. 각각 정기에 금과 금융채 금리가 오른 탓이다.

반면 대출평균 금리는 2bp 떨어진 3.18%로 1996년 1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직전 최저치는 9월 기록한 3.19%였다.

주담대는 5bp 하락한 2.45%로 역사 사상 최저치를 보였다. 대기업대출도 8bp 내린 3.05%로 2017년 4월 3.05% 이후 2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주담대는 시장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안심전환대출이 취급된 것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에서 우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취급한 것이 각각 영향을 줬다.

반면, 집단대출은 35bp 급등한

집단대출은 3.1%까지 올라
중소대출도 6bp 오른 3.45%

3.10%로 2013년 1월 36bp 급등 이후 6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기존 승인됐던 고금리 대출이 실행된 때문이다. 중소기업대출도 6bp 오른 3.45%를 나타냈다.

예대금리의 기준이 되는 시장금리는 상승세를 보였다. 7월과 10월 한은이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약발이 먹이지 않는 모습이다. 실제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6bp 오른 1.52%를, AAA등급 은행채의 경우 6개월 금리는 5bp 상승한 1.50%를, 5년물 금리는 15bp 급등한 1.79%를 보였다. 최연령 한은 금융통계팀 부국장은 “2% 전후로 제공된 안심전환대출이라는 정책적 효과가 컸다. 안심전환대출이 없었더라면 주담대 금리는 실제 올랐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가중평균금리는 통상 시장금리를 따라 움직인다. 경기상황과 시장금리 움직임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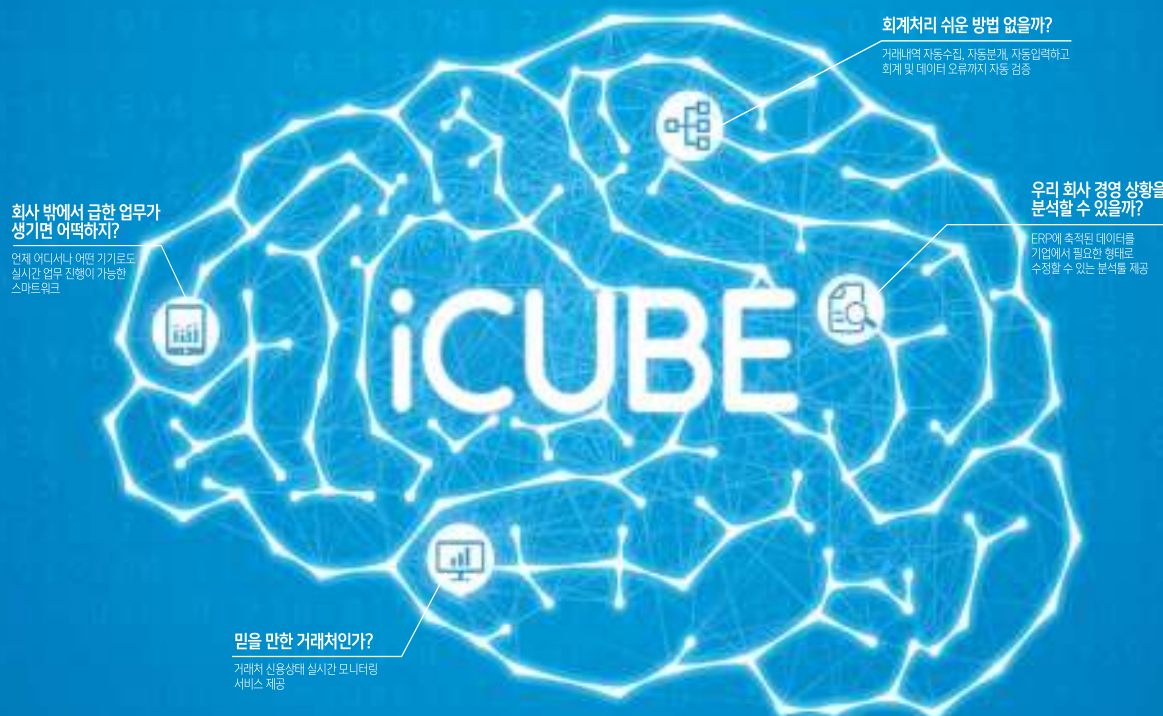
잔액기준으로 보면 총수신금리는 3bp 떨어진 1.27%로 지난해 4월 1.26%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총대출금리도 3bp 내린 3.42%로 2017년 10월 3.41%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대기업대출(3.23%)과 중소기업대출(3.53%), 일반신용대출(4.04%) 금리가 각각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김남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www.douzone.com

인공지능 ERP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다!

더존 iCUBE가 더욱 스마트해졌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기계학습 방법론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
기업의 업무는 이제 국내 유일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에 맡기십시오.



기업용 ERP

더존 iCUBE PC Edition 더존 iCUBE Cloud Edition 클라우드 서비스

회계관리 인사급여관리 영업관리 무역관리 구매관리재관리
생산관리 외주관리 서비스관리 경영정보관리 공시환장관리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용 ERP

더존 iCUBE G20 PC Edition 더존 iCUBE G20 Cloud Edition 클라우드 서비스

예산관리 자산관리 후원자관리 회계관리 인사급여관리
경영정보관리 영업관리 구매관리재관리 생산관리 외주관리

더존 ERP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 문의 1688-5000

<기업 PR>

푸본현대생명, 입원 첫날부터 치료비 보장

‘ZERO 메디컬 보험’ 인기

푸본현대생명은 합리적인 보험료로 입원 첫날부터 입원급여금을 보장하는 ‘ZERO 메디컬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 상품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해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 첫날부터 입원급여금을 보장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추가로 입원급여금을 보장해 하루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을 때에는 응급실 치료비를 보장받고, 수술특약과 재해골절특약 등의 특약 가입을 통해, 수술급여금과 재해골절치료비, 깁스치료를 보장받는다.

‘ZERO 메디컬보험’은 10년마다 계약이 갱신되며,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갱신 때마다 지급되는 만기지급금은 건강관리자금 및 여행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최초 보험계약 시 가입 나이는 만15세부터 60세까지, 보장기간 및 보험료 납입기간은 10년이다.

푸본현대생명 ‘ZERO 메디컬보험’은 유병력자와 고연령자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도 ‘간편가입’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① '14억 대국' 현금 없는 사회로

백화점부터 노점상까지 'QR코드' 결제 지갑 닫은 중국...페이 시대를 열다

알리페이, 정부 지원에 출범 2년새 中 전역 확산
작년 상반기 기준 서비스 이용 고객 9억명 육박
韓보다 모바일 결제 플랫폼 분야 5년 이상 앞서

“즈푸바오(支付宝·알리페이)? 헨하오(很好·매우 좋다).”

알리페이만 있으면 현지 사정을 잘 모르는 관광객도 어디서든 대환영이다. 13세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불렸던 상하이. 미려향주(美麗杭州)로 불리는 아름다운 이 도시는 1990년대 중국 경제개발의 심장이 된다. 금융산업이 특히 발달한 이곳은 전 세계에서 모바일결제 시스템이 가장 잘 구축된 도시다. 상하이에서는 모든 결제가 모바일로 이뤄진다. 알리바바가 만든 알리페이와 텐센트의 위챗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니온페이가 BC카드와 손잡고 '페이북'을 통해 모바일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알리바바그룹이 2004년 론칭한 모바일 결제플랫폼 알리페이는 중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면서 1~2년 사이에 중국 전역으로 퍼졌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알리페이 사용자는 9억 명에 달한다. 지하철, 택시, 호텔, 시장까지 모바일 결제로 통하는 세상.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을 합친 이른바 '핀테크(fintech)' 혁신을 이끌고 있는 곳. 바로 상하이다. 시장에서는 한국이 모바일 결제 분야에서 중국에 5년 이상 뒤졌다고 입을 모은다. 카드가 주요 결제 수단인 국내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결제시스템을 진화시켜 나갈지 중국에서 답을 찾는다.

◇ 지갑 대신 휴대폰만 들고 다니는 중국인... 백화점부터 노점상까지 'OK' = 상하이의 쇼핑과 소비 핵심 지역 황푸구, 물건을 사고 결제하는 쇼핑객들의 손에 지갑 대신 휴대폰이 들려 있다. 중국에서 취재팀이 만난 현지인 모두는 스마트폰 바코드로 결제하는 모바일 결제를 이용했다. 현금이나 카드를 쓰는 사람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국내에서도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처럼 모바일을 통한 결제 방식이 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서울시가 결제 서비스를 다양화하겠다고 QR 방식의 모바일 결제 플랫폼 '서울페이'를 내놓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국내는 현금과 카드가 주 결제 방식이다.

중국의 모바일 결제는 남녀노소를 불문한다. 거리에서 만난 대학생 양나는 "알리페이를 뭉치기 결제한다. 현금을 아예 가지고 다니지 않아서 지갑을 따로 들고 나가는 일이 없다"면서 "휴대폰 하나면 모든 결제가 가능해 외출할 때 지갑이나 가방 없이 간편하게 나갈 수 있다"고 했다. 노년층도 마찬가지다. 장정 부부도 취재진에게 외출할 때 이것만 들고 나온다고 휴대폰을 보여줬다. 부부는 "우리 부부의 경우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함께 이용한다"며 "할인율이 다르거나 쿠폰이 지급되는 등 각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다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푸구 쇼핑거리 명물인 지오다노 매장에 들어갔다. 복층으로 된, 규모가 큰 매장으로 손꼽힌다. 계산대 앞에 알리페이, 위챗 등 모바일 결제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모바일 결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내 휴대폰에 결제 QR 바코드를 매장 포스에서 스캔해 계산하는 방식과 매장에 있는 QR 코드를 내 휴대폰으로 스캔해 결제하는 식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업체 규모에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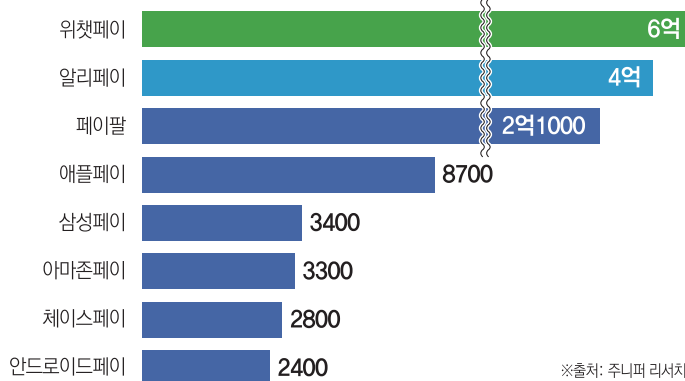
가차 안에서 모바일 결제로 구입한 '도시락'.



상하이 인근 시장에서도 모바일 결제가 이뤄진다.

글로벌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 사용자

(단위 : 명, 2017년 8월 기준)



※출처: 주니퍼 리서치

중국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 점유율

(2018년 4분기 기준)



※출처: 중국 빅데이터 업체 '이판'

재래시장 등 카드·현금 결제 어려운 곳 많아
선불 충전 '투어패스' 출시로 관광객 불편 해소
“韓, 가맹 수수료·벤더 등 사업 확장에 걸림돌”

라 결제 방식이 달랐는데 요새는 모두 가능하다.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결제 방법이 모두 가능해진 것이다.

현지 지오다노 직원은 “거의 모든 고객들이 모바일 결제를 통해 계산한다”며 “매장 입장에서 거스름돈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서 결제 시간이 빠르고 계산을 실수하는 일이 없어 편리하다”고 했다.

노점상도 모바일 결제가 가능할까. 카드를 내밀자 상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양팔로 엑스(X) 자를 그려 보이기도 했다. 우리는 환전해 간 지폐로 계산을 시도했다. 이번에도 손사래를 쳤다. 잔돈이 없어 현금을 받을 수 없다는 표시였다. 우리가 알리페이를 내밀자 금세 표정이 풀렸다. 외국인이 알리페이 결제를 다했다며 덤으로 물건을 봉지 안에 넣어주는 친절까지 베풀어 주었다. 인근 재래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 관광객도 쓸 수 있는 '알리페이'... 중국 더 쉬워진다 = 중국은 여행 전 비자가 필요하다. 단체 여행이 아니면 비자 발급도 꽤 까다롭다. 국내와 달리 카드나 현금 결제가 안 되는 곳이 많다. 아무리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이라고 해도 관광객이 사용하기에 진입장벽은 높다. 알리페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국 계좌가 있어야 했다. 넘어야 할 장벽은 또 있다. 계좌 개설을 위해서는 중국에서 사용 가능한 핸드폰이 필요하다. 알리페이를 운영하고 있는 앤트파이낸셜(알리바바 금융자회사)이 지난해 11월 '투어패스'를 만들면서 관광객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은행의 계좌 등록 방식을 비자, 마스터, JCB, 다이너스클럽 등의 국내 신용카드(international)로 결제하고, 상하이은행 선불 충전카드를 구매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취재팀도 알리페이 투어패스를 활용해 모든 중국 내 지출을 모바일 결제를 사용했다. 충전한 금액의 유효 기간은 90일이며 쓰고 남은 잔액은 카드를 해지하면 자동으로 환급된다. 앱스토어를 통해 알리페이 앱을 내려받은 뒤 한국 휴대폰 번호로 계정 등록한 뒤 투어패스 프로그램을 받으면 된다. 충전 금액 설정(1회 한도 최대 2000위안, 한화 약 33만 원)과 여권 정보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끝이다.

홍흥기 우리은행 상해 분행장은 “중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가방에 현금 대신 충전기를 갖고 다닌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며 “휴대폰으로 모든 결제를 하다 보니 그만큼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사회주의라는 것이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확장될 수 있었던 강력한 추진력으로 작용한 것 같다”며 “우리 나라의 경우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가맹점 수수료, 벤더, 카드업체 종사자 등 걱정할 게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중국특별취재팀(상하이)=

김범근 기자 nova@·정용욱 기자 dragon@·곽진산 기자 jinsan@

항저우 '허마센싱' 가보니

'알리페이'로 무인 결제 로봇이 요리까지 '척척'

“허취팡(盒區房) 안에 살어리랏다”

허취팡은 중국 젊은이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주거 지역이다. 우리 식으로는 '하세권'으로 표현하면 비슷하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썩세권' 또는 '스세권(스타벅스 인근)' 정도 될까?

허취팡은 알리바바의 신선식품 취급점인 허마센싱(盒馬鮮生)을 이용할 수 있는 구역(거리) 안의 아파트를 의미한다. 아파트는 매장에서 3km 반경 안에 위치한다. 앱으로 쇼핑을 마친 후 30분 안에 주문한 물건을 받을 수 있다. 가격이 비싼 편에 속하지만, 바쁜 젊은 층에 인기를 끌고 있다.

알리페이가 탄생한 중국 저장성 항저우를 찾았다. 항저우는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앤트파이낸셜 본사가 위치한 곳이다. 본사에서 가장 가까운 허마센싱을 방문했다. 입구에 들어서자 공산품을 진열해 놓은 판매

대가 보였다. 계산

을 하거나 상품을 판매하는 점원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결제는 모두 무인계산대(사진)에서 알리페이로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압권은 수산물 코너였다. 공산품 뒤편에 꽤 큰 공간에 새우 킹크랩 같은 싱싱한 해산물을 볼 수 있다. 허마센싱은 슈



퍼마켓과 함께 싱싱한 수산물을 판매한다. 매장의 70% 이상이 로봇식당을 운영 중이다. 주문부터 음식 배달까지 직원의 도움이 필요 없다. 알리페이로 싱싱해 보이는 대하를 고르고 요리법을 선택했다. 우리가 방문한 곳에는 안타깝게도 로봇이 없어 직접 요리를 받아왔다.

천장에는 컨베이어 벨트가 길게 연결돼 있다. 어떤 물건일까. 고객들이 주문한 물건을 집어 바구니에 넣은 뒤 컨베이어 벨트에 걸었다. 바구니는 천장에 설치된 벨트를 따라 배송구역 안으로 들어간다. 이 바구니들은 라이더들에게 전달돼 소비자들의 집으로 배송된다.

허마센싱 관계자는 “일반 상점에 비해 제품들은 가격이 비싼 편이다. 하지만, 젊은 층 사이에서 편리하다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5월 46개였던 매장은 연말에는 150여 개까지 늘었다. 앤트파이낸셜은 항저우 외에 중국 전역으로 허마센싱을 계속 추가로 열 계획이다.

중국특별취재팀

한국은 좁고 세계는 넓다. 어디를 나가도 'K-브랜드'를 볼 수 있게 된 것은 한국이 아닌 곳에서 한국을 알리는 기업들의 활약 덕분이다. 이들 기업은 현지 시장을 철저히 분석해 소비자들의 취향, 트렌드에 맞춰 제품을 현지화하는가 하면, 아예 글로벌 브랜드로 포지셔닝하거나, 가격 경쟁력을 위해 공장을 설립하는 등 현지 시장에 맞는 '글로벌 전략'을 펼치며 시장에 안착하고 있다. K-브랜드 성공 전략을 돌아보며 글로벌 활약상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롯데리아 베트남 호찌민 고밥점

베트남 남다른 '치킨사랑' 메뉴 확 늘린 롯데리아



글 쓰는 순서

- 1 K-푸드, 글로벌 식탁 메뉴 바꾼다
- 2 세계인의 집안 여는 K-쇼핑
- 3 K-뷰티, 전 세계 여심을 홀린다
- 4 K-패션, 뉴욕·밀라노 런웨이 접수
- 5 글로벌 신약 주권 도전하는 K-바이오

지난해 12월 15일 밤 베트남 호찌민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 시간은 30분. 길거리에는 태권도·세탁소·소고기 전문점 등 한글 간판이 여럿 보였다. 그중에서도 자주 눈에 띄는 건 호찌민 시에 86개 점포가 있다는 '롯데리아' 간판이었다.

다음 날 호찌민 랜드마크 81에 들어선 롯데리아 점포에는 점심시간이 훌쩍 지난 시간인데도 여전히 식사 중인 손님이 눈에 제법 띄었다. 매장에 있는 6명의 현지인 가운데 2명은 치킨, 2명은 라이스, 2명은 버거를 먹는 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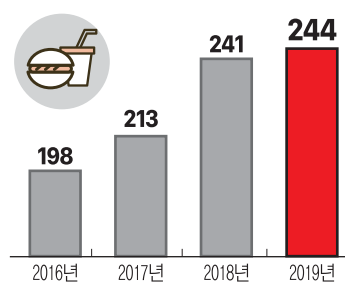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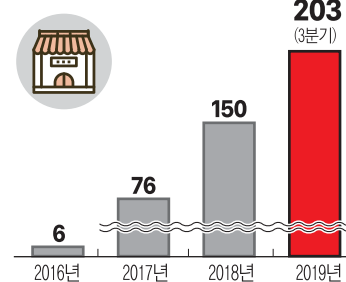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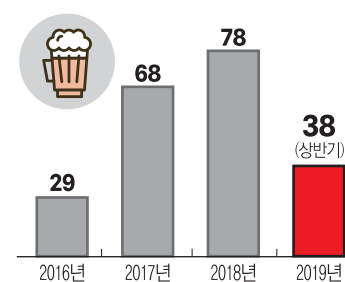
점원 르영쑤언쑤영(28)은 "손님 중에 베트남 현지인은 80%, 관광객과 한국인 방문객은 20% 정도"라며 "가장 잘 나가는 햄버거는 치킨 버거나 소고기 버거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치킨이나 라이스 종류를 찾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다.

롯데리아는 맥도날드, 버거킹 등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계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업체 가운데 가장 많은 점포를 운영 중이다. 호찌민 시내 불록마다 자리했다 싶을 만큼 점포가 많은 롯데리아는 현재 직영점 위주로 운영 중이며, 매년 15%씩 매출이 성장하고 있어 앞으로 가맹점을 늘리는 게 목표다.

롯데리아가 치열한 현지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엔 철저한 '현지화' 전략이 있다. 롯데리아는 베트남에서 햄버거 못지않게 치킨을 주력으로 판다. 메뉴도 '치킨', '버거', 치킨과 밥을 같이 먹는 '라이스' 3종으로 다양화했다.

베트남에서 입맛 현지화 전략을 펼치는 또 다른 곳은 'BBQ'다. 다다음 날인 17일 방문한 호찌민 BBQ 매장 역시 치킨집이라고 하기엔 메뉴 구성이 다양했다. 이날 식사 중인 4팀 중 3팀의 테이블 위에는 뚝배기가 올려져 있었다. 이곳에서는 불고기, 부대찌개, 닭갈비, 오징어덮밥, 제육덮밥 등 다양한 한식 메뉴를 함께 판매 중이었다. 점장 김모 씨는 "방문객 90% 이상이 베트남인"이라며 "치킨을 가장 많이 찾지만 찌개, 떡볶이 등 한식도 같이 판다"고 말했다.

인근에 있는 '두끼 떡볶이' 매장은 'K푸드 열풍'이라는 수식어가 제값했다. 12시 점심시간 전부터 1·2층으로 운영 중인 매장이 현지인들로 꽉 차 있었다.

롯데리아 베트남 매장 수 추이
(단위 : 개)롯데마트 베트남 실적 추이
(단위 : 억 원)하이트진로 베트남 실적 추이
(단위 : 억 원)

‘치킨 결들인 밥’ 등 현지인에 인기 롯데리아, 호찌민에 86개점 안착 BBQ에는 베트남 입맛 잡은 ‘뚝배기’ 하이트진로 ‘과일소주’ 매출 급성장 CJ제일제당 ‘비비고’ 공장 올 준공



호찌민 현지 마트에 진열돼 있는 한국 술.

식사를 기다리던 부이띠엔중(32)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꼭 오는 단골집"이라며 "김치, 김밥, 떡볶이 등 다양한 것들을 입맛대로 먹을 수 있어서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마침 '두끼 떡볶이'에 취업해 영업을 배우려는 김모(27) 씨가 면접을 보고 있었다. 김 씨는 "베트남 사람들은 월 30만 원을 벌면서 2000원짜리 음료를 아무렇지 않게 사 먹는다. 두끼 떡볶이에서 창업을 위한 경험을 쌓고 싶다"고 말했다.

베트남에선 한국 술도 인기가 있다. 2016년 베트남 현지 법인을 세운 하이트진로는 베트남에만 출시하는 제품 및 유통망 확장 전략을 펴고 있다. 베트남에서의 주류 판매는 우리나라와 달리 유통업체에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하이트진로는 현지 3200여 개 유통채널 가운데 700여 개 편의점과 마트에 입점해 있다. 대표 상품인 '참이슬'을 필두로 '청포도에 이슬', '자몽에 이슬', '자두에 이슬' 등 4종의 과일 소주로 인기몰이 중이다. 베트남에서 최근 3년간 소주

는 연평균 46%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

하이트진로 호찌민법인 김용기 지점장은 "과일 소주의 성장세가 가팔라 최근에는 한국산 딸기를 선호하는 베트남인들의 취향을 반영해 오직 수출용으로 '딸기에 이슬'을 출시했다"며 "하이트진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식 실내포차인 '진로포차'를 선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호찌민 현지 마트, 편의점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또다른 K브랜드는 CJ제일제당의 '비비고'다. CJ제일제당은 식품업체 가운데 베트남 진출에 가장 공격적인 기업으로 꼽힌다.

CJ제일제당은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 생산기지를 설립 중이다. 2017년 700억 원을 투자한 호찌민 공단에 2만 평 규모의 생산 공장은 2020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다.

현지에 공장을 세워 가격경쟁력을 갖춘 대표적인 업체가 오투기다. 베트남 현지라면 한 봉지 가격이 평균 250~300원이면 한국라면은 1500~2000원에 팔린다. 반면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오투기라면은 500원가량으로 저렴한 편이다. 오투기는 2007년부터 베트남 법인을 설립한 후 2010년 하노이 공장을 완공했다. 현재 오투기는 케첩과 마요네즈 등 소스류와 라면, 3분 카레, 피자 등 250여 개 제품을 현지 생산해 판매 중이다.

베트남인들에게 한국은 특별한 나라임에 틀림없다. 동남아시아(SEA) 게임 60년 역사상 처음으로 베트남 국가대표 축구팀을 정상에 올린 한국인 박항서 감독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은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베트남인들이 한국에 열광한다고 해서 무조건 한국산 제품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며, 한국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박이 나는 건 더더욱 아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베트남에 진출하고 싶다는 한국 업체들이 수시로 찾아오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물건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없다. 치밀한 전략 없이 베트남에 오면 성공할 수 없다. 현지화는 방법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호찌민(베트남)=박미선 기자 only@

러시아 국민라면 '팔도' 중국서 불티난 '오리온' 세계는 K-푸드 홀릭

'K-푸드'가 세계인의 먹거리로 거듭나고 있다. 농식품 수출정보에 따르면 농림수산물식품의 지난해 11월까지 누적수출액은 86억8000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 K-푸드의 수출 증가는 식품외식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 기지 설립과 현지화 메뉴 개발의 공이 컸다.

◇세계 입맛 홀린 한국 라면 = 불닭볶음면으로 열풍을 일으킨 삼양식품은 지난해 3분기 라면 수출액이 70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나 치솟았다.

팔도는 러시아 국민 브랜드로 통한다. 2018년 도시락 판매량은 3억3000개로 러시아 국민 전체가 최소 2개씩 구매한 셈이다.



중국 현지 대형마트 내 진열되어 있는 오리온 초코파이를 한 소비자가 살펴보고 있다.

◇해외에서 더 잘나가는 CJ제일제당·오리온 = 오리온은 초코파이로 시작된 해외 시장 개척이 다른 제품군으로 확대되며 글로벌 제과 기업으로 안착했다. 오리온은 중국, 베트남 법인의 선전으로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 1000억 원을 넘어섰다.

쉬완스를 인수한 CJ제일제당은 쉬완스의 물류 인프라를 활용한 K-푸드 알리기가 한창이다. 비비고 만두, 김치, 각종 HMR를 앞세워 현지인 입맛 잡기에 나섰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3분기에만 9058억 원의 글로벌 매출을 올린 바 있다.

◇김·인삼·주류도 차세대 K-푸드로 주목 =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는 과일리큐르인 '자몽에이슬', '순하리딸기' 등으로 북미와 아시아권을 공략하고 있다. 해외에서 스낵으로 각광 받는 김의 CJ제일제당 연간 수출액은 2500억 원에 이른다. 인삼 제품도 수출 효자 상품이다. 인삼 수출액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1억 8500만 달러로 연간 수출액이 첫 2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유현희 기자 yhh1209@

“기대감·불확실성 혼재… 코스피 2500 갈 수도”

2020년 증시 전망

① 작년 증시 가장 기억에 남는 뉴스
② 올해 코스피, 코스닥 예상 밴드

③ 올해 증시 고/저점 시기
④ 올해 증시 상승/하락 예상 이슈

⑤ 올해 눈여겨 볼 업종
⑥ 올해 관심 가질 만한 종목

⑦ 올해 국내·해외 증시에서 투자를 말리고 싶은 업종
⑧ 증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 및 정책

신한금융투자 윤창용	메리츠증권 이경수	하나금융투자 조용준	삼성증권 오현석	유안타증권 박기현	KB증권 서영호	NH투자증권 이창목
① 미중 무역분쟁 ② 2000~2400	① 미중 무역분쟁 격화 ② 코스피: 2000~2500 코스닥: 600~780	① 미중 무역전쟁 1단계 합의 ② 2100~2450	① 미중 무역분쟁 ② 코스피: 1950~2350 코스닥: 700~800	① 무역분쟁 ② 코스피: 2000~2400 코스닥: 580~750	①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 ② 코스피: 1950~2400	① 미국 증시 사상 최고치 ② 2400
③ 고점 2분기 저점 4분기 ④ 미 대선 이슈	③ 고점 4분기 저점 2분기 ④ 미중 무역분쟁 2단계 합의	③ 고점 2분기 저점 4분기 ④ 미중 무역 전쟁	③ 고점 3분기 저점 1분기 ④ 미 대선, 홍콩 시위 악화, 한반도 지정학적 위기	③ 2분기 말 ④ 금리 급등시 증시 하락	③ 고점 3분기 저점 1분기 ④ 상승 연준 완화적 통화정책, 한국 기업이익 증가 하락 무역분쟁 재격화 가능성	③ 고점 5월 저점 10월 ④ 상승 경기지표개선 하락 미국대선 불확실성, 예상기업이익 하락
⑤ 반도체, 은행 ⑥ 삼성전자, KB금융	⑤ 반도체, 핀테크, 조선 ⑥ 삼성전자	⑤ 반도체 5G ⑥ 삼성전자	⑤ IT, 플랫폼, 미디어/콘텐츠 ⑥ 코스피: 삼성전자 코스닥: 스튜디오투레곤	⑤ IT, SI ⑥ 삼성전자, 삼성 SDS, 에스에프에이	⑤ 반도체, 인터넷커뮤니케이션, 금융 ⑥ 코스피: 삼성전자, 카카오 코스닥: CJ ENM, 스튜디오투레곤	⑤ 반도체 ⑥ 삼성전자, 스튜디오투레곤
⑦ 증권거래세 인하 ⑧ 증권거래세 인하	⑦ 은행 ⑧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⑦ 코스닥시장 부양 4차 산업 육성	⑦ 정유/화학, 보험 ⑧	⑦ 소재, 산업재 ⑧ 거래세 인하, 혁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⑦ 바이오 ⑧ 한국 증시의 레밸업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주주환원정책이 강화될	⑦ 생명보험 ⑧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강화 유예, 기업탈방 의무화

리서치센터 10곳 설문

2020년 경자년(庚子年)을 맞는 자본시장은 기대감과 함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혼재된 모습이다. 지난해 국내 증시는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과의 무역마찰 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를 보낸 만큼 2020년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다. 이투데이가 국내 주요 증권사 10곳의 리서치센터장을 대상으로 올해 증시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올해 코스피 지수 밴드로 1900~2500포인트를 예상했다.

美·中 무역협상 2단계 진행 예정
홍콩 시위·브렉시트 현실화 등
국내 증시 하락 압력 변수 많아

반도체, 韓 기업 실적 개선 주도
‘5G’로 하반기 턴어라운드 예상
코스닥선 ‘스튜디오투레곤’ 주목



◇코스피 탈출 기대감 여전히 낮아 = 10명의 센터장 중 밴드 상단으로 2400포인트대를 예상한 응답이 6명으로 절반을 넘었고 2500포인트를 전망하는 센터장도 있었다. 2400포인트는 2018년 말 종가인 2041.04보다는 높지만 2017년 말 종가(2467.49)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수 밴드 상단은 증시 방향성을 점치기 위한 중요 좌표로 전망치가 낮을수록 시장의 상승을 이끌 모멘텀도 적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코스닥 지수 밴드는 580~820포인트로 예상했다. 상단 밴드는 응답자 전원이 750포인트 이상을 점쳤다. 다만 설문 응답 센터장들의 절반인 5명은 코스닥 밴드 예상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리서치센터장들은 올해 증시 향방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 미·중 무역협상 결과를 첫손에 꼽았다. 2018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적으로 촉발됐다. 양국은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13일 무역협상의 1단계에 도달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우선 1월 초 1단계 합의에 대한 서명이 남아있고, 이후 이행 과정도 제대로 지켜질지 확실치 않다. 또 2단계로의 추가 무역협상도 전개될 예정인데, 미국 대선이라는 정치적 이슈도 얹어져 불확실성은 더

증폭되고 있다.

특히 미 대선은 그 자체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주목해야 할 이슈다. 올해 11월 3일인 미 대선까지 11개월 남은 현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들에게 가장 투표 대결에서 밀려 정권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연우 대신증권 센터장은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불확실성 증가로 국내 증시에 하락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홍콩 시위 악화, 노딜 브렉시트 현실화 등 대내외 여건도 국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로 거론된다. 반면 주요 선진국에서 정부가 재정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앙은행은 유동성을 확대하는 ‘폴리시믹스’가 펼쳐질 경우 증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글로벌 중앙은행의 자산이 전고점을 회복하는 시점을 전후로 변곡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유망업종은 ‘반도체’, 비추업종은 ‘보험’ = 눈여겨 볼 만한 업종을 묻는 질문에는 10명 중 7명의 센터장이 반도체 업종을 지목했고, 다음으로 3명의 센터장이 IT 업종을 추천했다.

정연우 센터장은 “반도체 업종은 코스피 이익개선율의 40%를 차지하고 한국 기업

실적 개선을 주도할 전망”이라며 “반도체 사이클에 5G 모멘텀의 유입으로 하반기 턴어라운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코스피시장에서 올해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을 묻는 질문에는 10명 전원이 삼성전자를 추천하며 국내 증시 대장주에 대한 믿음을 보여줬다.

눈에 띄는 부분은 코스닥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종목으로 4명의 센터장이 스튜디오투레곤을 지목한 점이다.

스튜디오투레곤은 2016년 씨제이이엔엠의 드라마 사업분부가 물적 분할돼 설립된 회사로 드라마 콘텐츠를 기획·제작해 미디어플랫폼에 제공하고 VOD, OTT 등을 통한 유통 및 관련 부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미생, 또오해영, 도깨비, 비밀의 숲, 미스터선사인 등 완성도와 화제성 높은 드라마를 선보인 바 있다.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센터장은 “콘텐츠 사업의 경우 5G와 폴더블 디스플레이 확산 및 신규 OTT 출범에 따르는 콘텐츠 수요 증가가 예상돼 긍정적 견해를 제시한다”며 “이 업종에서는 스튜디오투레곤을 눈여겨 볼 만하다”고 답했다.

투자를 말리고 싶은 업종을 묻는 질문에는 2명의 센터장이 보험 업종을 꼽았고 은행, 정유·화학, 유틸리티, 소재, 산업재, 바이오, 건설업종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서영호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바이오 업종은 지난 2년간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전에 비해 밸류에이션 부담이 줄었지만 미국 대선을 앞두고 약가 인하 이슈가 상승폭을 제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 필요” = 센터장들은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제언들도 내놨다. 특히 증권 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해 활발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윤희도 센터장은 “장기투자 문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절실한데 부동산 장기 보유 시 양도세 특별 공제가 적용되는 것처럼 유통주식에 대해서도 장기 보유시 세금을 공제해주는 등 유통시장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며 “매년 말 반복되는 대주주 양도세 부과 이슈는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주주환원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서영호 센터장은 “한국에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많아,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이익을 배당하기보다는 사내에 유보해두는 편을 선호해 왔다”며 “한국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자산을 주주에게 환원함으로써 자본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이신철 기자 camus16@

“무역협상 혼풍… 美·中시장 주목해야”

달러 안정 찾으며 신흥국 매력 부각, 해외 추천 종목은 MS·구글·애플

대다수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내년 미국과 중국 주식시장의 호재를 점쳤다. 특히 IT(정보통신)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에 주목할 것을 제안했다.

이투데이가 국내 상위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8명이 내년 주목해야 할 해외 주식시장으로 중국을 꼽았다. 이어 미국이 7명으로 뒤를 이었다.

무역협상이 1단계 합의에 성공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증시에도 혼풍이 불 것이란 의견이다. 중국의 경우 달러가 안정을 찾으면서 가격 면에서 경쟁

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정연우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중 분쟁 완화를 위한 선례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신흥국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일 것”이라며 “달러 강세가 주춤할 경우 가격 메리트가 높은 신흥국 증시의 매력에 부각될 것”이라고 짚었다.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센터장은 “선진국에서는 미국을, 신흥국에서는 중국을 최선호 국가로 선정한다”며 “글로벌 주식시장의 양호한 흐름을 예상하는데 경기 바닥 통과와 기업실적 개선, 유동성 환경 등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올해까지 글로벌 경기 부진이 이어질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김지산 키움증권 센터장은 “미국의 12개월 선행 PER(주가수익비율)가 17.6배를 기록하는 등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며 “4분기에도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성향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글로벌 주식시장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글로벌 IT기업을 비롯한 반도체 업종이 회복할 것이란 의견에는 만장일

2020년 리서치센터장 추천 해외 증시

“미중분쟁 완화로 위험선호 심리 회복”	“미국의 12개월 선행 PER가 17.6배 기록, 높아진 밸류에이션 부담”	“경기 바닥 통과, 기업실적 개선, 유동성 환경 등 글로벌 증시 긍정적”
“달러 강세 둔화로 가격 메리트 높은 신흥국 증시 매력 부각”	“4분기 전년 대비 영업이익 역성장 가능성”	“달러화 강세 안정으로 미국의 시장 개선”
대신증권 센터장 정연우	키움증권 센터장 김지산	한국투자증권센터장 윤희도

치를 보였다.

해외 추천 종목으로는 공통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아마존 △알파벳을 지목했다. 이외에도 △아이폰라이프 △상하이국제공항 △소프트뱅크 △동일본여객철도 △SAP △아메리칸타워 △AT&T △레이시온 등을 제시한 곳도 있었다.

서영호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애플의 경우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Apple TV+’를 론칭할 예정으로 신규 사업 확대에 따른 기대감이 높다”며 “또 게임과 신용카드, 뉴스플러스 등 다양한 사업을 확대할 예정으로 성장성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먹튀’ 이미지 벗고 M&A 흥행 주연된 ‘사모’ 님

고용 안정·경쟁력 제고 위해 기업이 먼저 PEF에 인수 제안도
MBK파트너스, 홉플러스·롯데카드 인수 후 세계적 PEF 성장
회수 목적에 투자보단 경영 효율 초점… 산업 성장 위축은 우려

“굳이 인수·합병(M&A) 시장에서 먹튀 감을 찾지 않더라도 사모투자펀드(PEF)에 먼저 손을 내미는(인수 제안) 기업인들이 많다. 기업을 들여다 보기 위해 제조업들이 위치한 장거리 여행길도 점차 찾아지고 있다. 대기업으로 옮긴다면 고위 임원은 ‘떼어 놓은 당상’이다.” 복수의 투자은행(IB) 관계자들이 전하는 M&A시장의 달라진 ‘먹이사슬’ 풍경이다.

론스타, 칼라일, 뉴브릿지캐피탈 등 외국계 ‘먹튀 자본’ 때문에 생겨난 부정적 인식도 많이 사라져 PEF를 반기는 기업 오너 및 임직원도 늘고 있다. PEF가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만든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오비맥주(글로벌 사모펀드 KKR와 어

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어피니티) 컨소시엄), 한국버거킹(VIG파트너스) 등이 이를 잘 말해 준다. ‘매머드급’ 회사가 시장에 매물로 나오면 인수 가능한 곳이 몇몇 대기업으로 압축됐지만, 이제는 사모펀드가 M&A의 흥행을 결정하는 주연이자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자로 꼽힌다. 가히 사모펀드 전성시대라 할 만하다.

◇실탄 앞세워 새 주인 속속 등극 = 31일 투자은행(IB)과 삼일회계법인 등에 따르면 국내 대기업이 해외 M&A로 눈을 돌리며 PEF의 입김이 거세지고 있다. 대기업 주도 1조 원 이상의 딜 대부분이 이들과 손을 잡고 진행되고 있다. 2011년 14%에 불과했던 사모펀드 딜은 2017년 49%, 2018년 43%로 비중이 커졌다.

PEF 규모별 현황 (단위 : 원)				
	출자 약정액	2017년	2018년	2019년 3분기
대형	3000억 이상	48억	58억	58억
중형	1000억~3000억	130억	146억	147억
소형	1000억 미만	266억	379억	407억
계		444억	583억	612억

지난해 롯데그룹이 내놓은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이 각각 MBK파트너스와 JKL파트너스에 넘어갔다. 밀크티 프랜차이즈인 공차도 미국계 PEF 운용사에 팔렸다. 공차의 경우는 PEF끼리 경영권을 사고판 사례다.

글로벌 1위 폴리이미드(PI) 필름 생산기업 SKC코오롱PI 새 주인도 국내 토종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글랜우드PE가 선정됐다. MBK파트너스·한앤컴퍼니·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칼라일그룹 등 내노라하는 PEF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LG CNS 지분 35%의 새 주인도 맥쿼리

GP 구성 현황			
	2017년	2018년	2019년 3분기
전업	138사	170사	178사
금융회사	35사	37사	39사
창투계회사	36사	49사	54사
계	209사	256사	271사

※출처: 금융위원회

코리아오퍼튜니티즈운용(맥쿼리PE)으로 결정됐다. 세아상역으로 넘어간 태림포장 매각에도 미국계 PEF 텍사스퍼시픽그룹(TPG) 등이 참여에 흥행을 이끈 바 있다.

투자 연한이 다가온 PEF들은 올해 M&A 매물을 쏟아내며 매각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전망이다.

◇세계적 규모의 사모펀드 시장으로 성장 = 홉플러스나 롯데카드를 인수한 MBK파트너스는 이미 세계적인 사모펀드가 됐다. 현재 국내를 포함해 중국·홍콩·일본에서 운용 중인 자산 규모만 150억 달러(약 17조 원)를 넘어선다. 롯데손보를 품은

JKL파트너스 역시 수조 원의 덩치를 자랑한다. 아시아나를 인수한 HDC현대산업개발 역시 미래에셋이라는 FI(재무적 투자자)가 없었다면 M&A를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토종 사모펀드 투자는 세계적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신규 PEF 투자 규모는 16조4000억 원,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는다. 스웨덴과 미국, 영국을 제외하면 1%를 넘는 나라가 없다.

빛이 있다면 그만큼 그림자도 뚜렷한 법. PEF 중심의 M&A시장에 대한 우려다. 회수가 목적인 PEF들이 투자보다 경영 효율화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 기업이나 산업 자체의 성장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이는 ‘엑시트 어려움, 투자자 외면, M&A시장’ 위축이라는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구조조정과 M&A 과정에서 PEF가 제 몫과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이정필 기자 roman@

인터뷰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

“국내 PEF시장 성장세… 활동영역 규제 해소를”

‘기업경영권 인수’에만 묶여… 벤처·부동산 등 다양화로 경쟁 촉진해야

“올해 사모펀드(PEF) 시장도 지난해와 비슷한 흐름을 예상한다. 기업 및 금융기관의 사업구조재편, 정책이슈(지배구조 개혁) 과정에서 나오는 크고 작은 인수합병(M&A)에서 이들이 주연급 연기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실장(선임연구위원)은 “부진한 경제 상황에서 한계에 다다른 중소기업(특히 경영권 승계기업)들이 기업경영권 인수(바이아웃) 시장의 성장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 시장의 특징으로는 국내 산업기반이 강하고 다양한 산업주기의 기업(스타트업, 성장, 성숙, 구조조정기업)들이 많다 보니 PEF 시장이 급성장할 수 있는 산업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딜소싱 잠재력이 크다 보니 국내외 PEF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며 PEF들이 빠르게 트랙 레코드를 쌓을 수 있는 시장 여건”이라며 “단점은 PEF 제도의 경직성으로 PEF는 경영 참여형, 즉 바이아웃 전략만 사용해야 돼서 성장과 사모펀드 운용사(GP)의 투자전략 다변화에 장애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단점을 극복하고 시장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모펀드 일원화 규제’의 국회 통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실장은 “사모펀드 성장의 또 다른 기반은 국내에는 다른 나라보다 자산운용시장이 연기금 중심으로 형성돼 있어서 투자자(LP) 규모가 크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글로벌 펀드레이징을 하지 않더라도 시장이 성장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적기금 중심의 LP 투자기반은 공고해 보인다”면서 “다만 연기금들의 글로벌 자산



배분 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해외 대체투자 딜과의 상대적 수익성 경쟁에서 어려움은 예상된다”고 덧붙혔다.

국내 투자에 집중된 한계점에 대해서

는 “국내 주요 LP들의 글로벌 자산배분 정책이 앞으로 큰 흐름이라면 국내 PEF도 이런 흐름에 맞춰 해외 딜소싱 전략이 필요하다”며 “해외 PEF들과 해외 딜에 대해 클럽딜을 추진한다거나 해외 PEF와의 전략적 제휴, 나아가 전략적 인수(M&A)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해외 진출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이고, 국가경제 자체가 거대한 성장 자본을 필요로 하는 아세안 주

요국 등이 일차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송 실장은 “사모펀드 일원화를 통해 사모펀드 간의 규제 차별과 그로 인한 규제 차익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그래야 사모펀드가 바이아웃 딜에만 머물지 않고 벤처, 부동산 등 다양한 사모 시장에 경쟁을 촉진하며 성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모펀드 일원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함께 금융안정 관점에서 사모펀드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유럽에서는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서 유동성 부족에 대비한 스트레스 테스트 규제(LST·liquidity stress test)를 의무화는 조치를 작년에 취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똑똑, 나기도 될까요?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인가요?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깨끗한 집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나요?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어린이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동을 먼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주거정책이 어린이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아동 주거권 증진을 위한 '집다운 집으로' 캠페인의 제도 개선 촉구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함께 해주세요

1588-1940 www.childfund.or.kr

“설 승객 모셔라”...3만4000석 증편 ‘항공 대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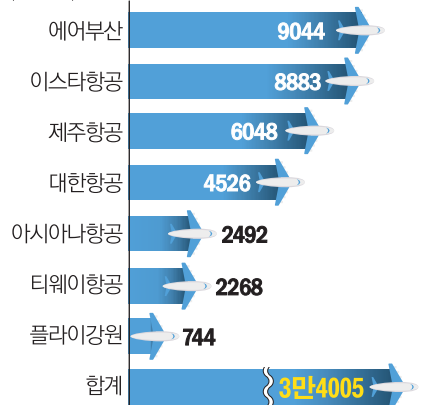
저비용항공사 공격적 마케팅 에어부산 9000석 증편 ‘최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국내선만

설 연휴가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항공사들이 항공편 추가 공급을 크게 늘렸다. 국내선은 물론 국제선까지 확대 편성하며 귀성, 귀향객은 물론 해외여행객까지 모두 잡아 수익성을 올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3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우선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선에만 항공편을 늘린다.

먼저 대한항공은 김포-제주, 청주-제주, 김포-부산 등 3개 노선, 26개 운항편에 4526석을 임시 공급한다. 아시아나항

설 연휴 기간 증편 규모 ※ 출처: 각 사 취합 (단위: 석)



공은 설 연휴 기간 김포-제주 8편, 김포-광주 4편 등 2개 노선에 12편(2492석)의 항공기를 추가로 띄운다. 두 항공사의 1인당 최대 예약 가능 좌석 수는 평상시와 같은 각각 9석과 6석으로 대가족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줄였다.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부산은 국내선을 모두 9044석 공급하며 국내 항공사 가운데 가장 많은 임시 항공편을 제공한다. 거점 공항인 김해(부산)공항에서 떠나는 김포행 노선을 26편, 부산-제주 14편 등을 포함해 총 49편을 늘렸으며 국제선은 타이베이 노선 일부만 증편했다.

이스타항공은 국내·국제선 모두 증편하며 수익성 강화에 나섰다. 먼저 국내선에는 모두 5850여 석을 공급한다. 김포-부산에 가장 많은 24편을 추가했으며 김포와 청주에서 출발하는 제주행 항공편도 각각 4편과 3편 늘렸다. 아울러 설 연휴와 겨울방학을 이용해 해외여행을 떠나는 관광객을 잡기 위해 국제선도 추가 편성했다. 이스타항공은 인천-방콕·다낭·코타키나발루에 더해 청주-방콕·다낭 등 지방발

국제선까지 해외로 떠나는 항공편만 총 3024석을 늘렸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신규 부정기 노선이 생기며 추가 공급석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티웨이항공 역시 국제선에 560여 석을 공급해 관광객 수요 잡기에 나선다. 대구-타이베이 노선에 23~24일, 27일에 한 편씩 증편한다. 국내선의 경우 대구-제주 노선에 총 9편, 1700여 석을 공급하며 모두 2260여 석을 늘린다.

제주항공도 설 연휴 다음 날인 28일까지 김포-제주 20편, 청주-제주 4편, 김포-부산 8편 등 총 32편(6048석)에 임시 증편을 진행한다. 특히 제주 노선 편수를 늘려 귀성객과 제주 여행객 수요를 동시에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신생 항공사 플라이강원도 24~25일 이틀에 걸쳐 제주-양양 노선을 하루 2편씩

증편했다. 진에어와 에어서울은 올해는 따로 임시편을 편성하지 않는다.

항공사들이 설 연휴 임시 항공편을 크게 늘린 것은 이동 시간을 줄이려는 승객과 해외로 떠나려는 여행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나흘의 짧은 연휴 탓에 기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의 예매가 치열해지고, 설령 예매를 성공하더라도 교통 체증으로 인해 이동 시간이 길어지는 불편함이 생긴다. 이에 따라 항공편을 이용해 편하게 고향을 오가려는 승객이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짧은 연휴를 고려해 장거리 노선보다는 동남아 등 단거리 해외여행에 관광객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항공사들도 이번 연휴 기간 관련 국제선 공급을 확대했다.

김기승 기자 kissoong@

LCD TV 패널 가격 ‘깜짝 반등’

32인치 전월 대비 3.3% 상승 55·65인치도 상승 전환 예상 생산감축 따른 단기 현상 분석

지난해 내림세를 보였던 LCD(액정표시장치) TV 패널 가격이 최근 반등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만, 생산량 조정에 따른 일시적 현상에 불과해 예년처럼 큰 폭의 상승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지난달 32인치 LCD 패널(1366×768) 가격이 전월 대비 3.3% 올랐다. 지난해 중반 들어 가파른 하락세를 이어오던 LCD 패널 가격이 30달러에서 31달러로 소폭 반등한 것이다.

IHS마킷은 55인치와 65인치 LCD 패널 가격도 이달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초만 해도 55인치는 올해 2월, 65인치는 올해 4월이 돼야 반등할 것으로 전망됐다.

LCD 패널 가격 상승세로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가격도 동반한 오를 여지가 생겼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관점에서 봤을 때 LCD와 올레드의 가격 격차가 너무 커지면 저가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생긴다”며 “가격 폭이

너무 큰 것은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LCD 패널 가격이 과거와 같이 대폭 상승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32인치 LCD 패널은 비주류 패널로 분류되고, 다른 크기의 패널은 업계 LCD 구조조정에 따른 영향이 커 상승세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LCD TV 생산라인 일부를 가동 중단해 QD(퀀텀닷) 디스플레이 생산라인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도 일부 LCD 라인 가동률을 조절하고 있다. 패널 공급 과잉의 주범이었던 중국 업체들도 생산량 조절에 들어가고 있다.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BOE 천원순 회장은 지난달 “현재 LCD 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며 “앞으로 BOE는 LCD 분야의 투자를 늘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BOE는 LCD 업황 불황 여파로 지난해 3분기 영업손실 5억9000만 위안(약 978억 원)을 기록했다. 홍하이그룹 산하의 디스플레이 업체 SDP(사카이 디스플레이) 또한 최근 광저우에 건설한 10.5세대 LCD 공장 양산 목표 시기를 올 4월로 연기했다.



정몽구재단 ‘SCI급 논문’ 장학생 11명 배출

현대차 정몽구재단의 지원을 받는 ‘온드림 미래 산업 인재 장학’ 11명이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급 국제 저명 학술지에 제1저자로 논문을 게재하는 성과를 냈다. 현대차 정몽구재단은 지난달 30일 재단 대회의실에서 ‘온드림 글로벌 우수 장학생’ 시상식을 진행했다. 재단은 상패와 300만 원의 특별 포상금을 각각 지급했다. 현대차 정몽구재단은 △자능정보기술 △바이오헬스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매년 170여 명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차

배재훈 사장 “현대상선 재도약 원년” 선언

배재훈(사진) 현대상선 사장은 “2020년은 현대상선의 재도약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 사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해운동맹체 디 얼라이언스(TH Alliance) 정회원 활동이 시작되고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투입되는 2020년은 현대상선에 새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해 경영환경에 대해 “미·중 무역분쟁에서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까지 글로벌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면서 물동량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 선박량 증가율도 높아질 것”이라며 “대내외 환경이 순풍이면 효과를



극대화하고, 역풍일 경우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 철저히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새해 2분기부터는 2만4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순차적으로 인수받아 아시아·유럽 항로에 투입하게 되고, 4월부터는 디 얼라이언스의 정회원으로서 새로운 협력시대를 열게 된다”면서 “이는 분명 우리에게 재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승 기자 kissoong@



물걸레 전용 로봇청소기 LG ‘CES 2020’서 공개

LG전자는 이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소비자가전박람회 ‘CES 2020’에서 물걸레 전용 로봇청소기 신제품(사진)을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

신제품은 기존 로봇청소기와 달리 본체를 움직여 주는 바퀴가 없다. 대신 2개의 동그란 물걸레가 회전하며 바닥을 깨끗하게 닦으면서 이동한다. 청소하는 동안 걸레가 마르지 않도록 촉촉하게 유지해 주는 자동 물공급 시스템도 적용됐다.

LG전자는 로봇청소기 신제품에 한층 더 진화한 듀얼 아이를 적용했다. 로봇청소기 상단과 하단에 각각 도입된 두 개의 카메라를 이용해 위치 인식과 지도 작성을 동시에 수행하는 SLAM 기술이 최적의 주행 성능을 구현한다.

이외에도 LG 씽큐 앱을 통해 청소모드를 변경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LG전자 H&A사업본부 리빙어플라이언스사업부장 류재철 부사장은 “그동안 경험할 수 없었던 청소 성능과 편리함을 갖춘 새로운 물걸레 로봇청소기로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예병태(왼쪽 두 번째) 쌍용자동차 대표이사가 평택공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예병태 쌍용차 대표 현장 찾아 ‘고통 분담’ 직원들에 감사인사

예병태 쌍용자동차 대표이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복지 축소 및 임금 삭감 등 두 차례 경영쇄신안 마련에 뜻을 모아준 현장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도 전했다.

쌍용차는 생산현장 환경 개선 및 제품 품질 향상 장려를 위해 ‘2019 CEO 한마음 라

운드 워크’를 전날 평택공장에서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예 대표는 우수 분임조 시상식에서 “제조업의 경쟁력은 생산현장에서 시작된다”며 “올 한 해 생산작업 개선 및 향상을 위해 애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격려했다. 특히 국내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경기 침체와 노사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10년 연속 무분규 임금협상 타결에 뜻을 함께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KAI, 차세대 중형위성 3기 독자 개발 착수

1800억 원 규모...2023년 발사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은 한국연구재단과 1800억 원 규모로 차세대중형위성 2단계 개발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업 기간은 2025년 12월까지다.

KAI는 전날 체결된 이번 협약을 통해 우주과학 연구, 재해재난 대응, 산림 관측이 가능한 500kg급 중형 위성 3기를 위성 시스템 설계부터 본체 개발, 제작, 조립 및 시험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한다.

차세대중형위성 사업은 1·2호기를 개발하는 1단계와 3~5호를 개발하는 2단계로 구성된다. 차세대중형위성 3·4호기는 2023년, 5호기는 2025년에 발사될 예정이



다. 특히 3호기는 한국형발사체인 누리호로 발사된다. 차세대중형위성 1단계는 공공분야 수요가 높은 500kg급의 중형 위성 표준플랫폼을 개발해 고해상도 위성 2기를 국내 개발하는 사업이다.

김기승 기자 kissoong@

오디오 전용 플랫폼 ‘오디오클립’ 출시 1주년

네이버, 오디오북 성장 이끈다

60여 개 출판사·1만여 종
누적 사용자 21만 명 넘어
‘법륜 스님의 행복’ 판매 1위

네이버는 오디오클립이 유료 오디오북 서비스 정식 출시 1년 만에 국내 1위 오디오북 서비스로 자리매김했다.

31일 네이버의 오디오 전용 플랫폼인 오디오클립은 해외에서 매년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오디오북 서비스는 약 5개월간의 베타 서비스를 거쳐, 2018 12월 유료 오디오북 서비스를 정식으로 선보였다. 출시 1주년을 맞은 오디오클립은 현재 60여 개 출판사와 손잡고 1만여 종의 오디오북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월 2만3000명의 이용자가 오디오클립을 통해 오디오북을 이용하고 있으며, 누적 사용자 수는 21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1년간 가장 많이 판매된 오디오북은 ‘법



륜 스님의 행복’으로 총 2만 권 이상이 판매됐다. 이외에도 ‘오 헨리 단편선’, ‘82년 생 김지영’ 등 13종의 오디오북이 1만 권 이상 판매되며 유료 디지털 오디오 콘텐츠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오디오클립 오디오북은 성우뿐만 아니라 배우, 아이돌 등이 직접 낭독자로 참여

했다. 한지민, 이상윤, 장기하 등 22명의 셀럽이 총 33권의 오디오북 낭독에 참여했으며 해민스님, 김영하, 유현준 등 작가가 직접 낭독한 오디오북도 23권에 달한다.

또 오디오클립은 오디오북 제작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출판사들의 오디오북 제작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올 한 해 민음사, 문학동네, 열린책들, 해냄 등 총 10곳의 출판사에 투자해 200종의 작품을 오디오북으로 제작했다.

이렇게 제작된 국내외 고전 및 베스트셀러 오디오북은 내년 상반기 중 오디오클립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다양한 시도를 통해 차별화된 오디오북 콘텐츠를 제공한다 는 계획이다.

이인희 네이버 리더는 “내년에는 구독 모델을 본격적으로 실험하면서, 사용자들은 합리적 가격에 오디오북을 경험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출판사들 역시 오디오북을 통해 유의미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 신년사 /

“中企·벤처 종합지원기관으로 도약”

정운모 기보 이사장



으로 총 21조 원의 기술보증을 공급해 세계 최강의 ‘DNA (Data·Network·Ai) Korea’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스마

정운모 기술보증기금(기보) 이사장이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 내년에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31일 정 이사장은 신년사에서 “2019년 기보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 나아가는 뜻깊은 한 해였다”며 “특허공제를 비롯한 기술보호 종합시스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강소기업 100 선정 등의 신규 사업을 추진해 업무영역을 확장하는 한편, 경영실적평가 A등급, 금융지원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기보의 가치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또 기보는 △6대 신산업과 스마트공장 등 혁신성장산업을 중심

트 대한민국 구축 △‘강소기업 100’ 선정 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 매출이 없는 기업과 저산용 기업도 기술력이 있는 경우 적극 지원하는 등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충실한 역할 수행 △기보의 기술평가시스템 대외 개방, 테크 브릿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활성화 등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입지 공고화 △보증과 직접투자의 복합지원, 엔젤플러스 프로그램을 통한 엔젤투자 시장 활성화, 교수 및 연구원 창업 지원 등을 통한 제2벤처 붐 조성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벤처인들, 혁신성장 주역 돼 달라”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하지만 안 회장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 신호와 성과를 대내외에 보여준 해이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기업가치 1조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벤처기업인들을 향해 내년 혁신성장을 이끌 주역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31일 안 회장은 신년사에서 “벤처업계는 정부의 ‘제2벤처붐 확산전략’ 발표와 기업의 노력에도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며 “지속되는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 수출규제의 대두,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둔 노사 간 갈등 고조, 각종 신산업과 기존 전통산업 간의 충돌 등 숱한 난관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벤처업계의 숙원이었던 벤처기업특별법과 벤처투자촉진법,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아쉬움도 남는 해”라고 설명했다.

안 회장은 “올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하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 벤처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주역으로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앞세워 한국경제의 혁신성장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어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교원라이프, 네오펙트와 시니어사업 확대 MOU

교원그룹의 상호전문 브랜드 ‘교원라이프’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교원그룹 본사에서 ㈜네오펙트와 전략적 제휴를 위한 협약(MOU)을 맺었다.

31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네오펙트는 올해 롱라이프그린케어를 인수하며 시니어케어 분야에서 경쟁력을 넓혔다. 교원은 네오펙트와 MOU 체결을 계기로 시니어 시장에 진출, 사업 확장에 나선다.

이날 협약식에는 교원라이프 김춘구 대표와 네오펙트 반호영 대표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교원라이프는 네오펙트와 주야간보호센터 확대를 위한 공동 투자를 진행한다. 주야간보호센터는 요양이 필요한 노년층을 위해 치매 및 재할 등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도심형 요양시설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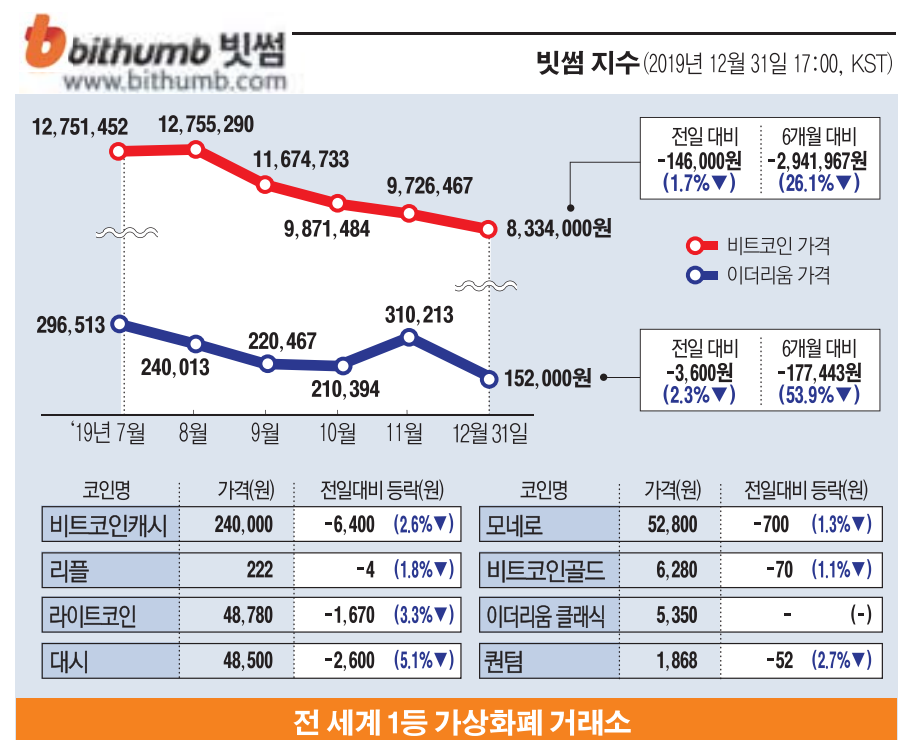
GROVANA
Swiss Made Since 1924

Time is our tradition.

‘시간은 우리의 전통’(Time is our tradition)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1924년 탄생된 스위스 메이드 워치, 그로바나(GROVANA)의 모든 제품은 스위스 텐니켄(Tenniken)에 위치해 있는 자체 공장의 생산라인을 통해 수작업으로 조립되며 3년간의 국제보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OI COMPANY Co., Ltd 02)6403-2112 www.grovana.co.kr

GMT 1547.1135



정부 대책 비웃는 현금 부자...강남 아파트 '신고가' 속출

대출규제 여파로 거래 끊겼는데
대형 위주로 '최고가 경신' 잇따라

반포 '아크로리버' 43.8억에 거래
'개포 우성2차' 한 달 새 2.5억 '쑥'
개포 '래미안...' 반년 새 8억 올라

서울 강남의 일부 고가 아파트 매매가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특히 고강도 부동산 정책인 12·16 대책 이후에도 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고가 거래가 이뤄져 초고가 아파트에는 대책 영향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2월 25일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64.39㎡가 43억8000만 원에 계약됐다. 전달 11일 43억 원에 거래된 이후 한 달여 만에 8000만 원 더 오른 것이다.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2차 아파트' 역시 전용 127.78㎡ 규모의 대형 평형이 12월 21일 34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기존

강남 일부 아파트 신고가 행진						
지역	아파트	전용	기존		최근	
			최고가	계약일	최고가	계약일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164.39㎡	43억 원	11월 11일	43억8000만 원	12월 25일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2	127.78㎡	32억 원	11월 13일	34억5000만 원	12월 21일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126.928㎡	25억2000만 원	6월 10일	33억5000만 원	12월 23일
강남구 수서동	강남 더샵 포레스트	114.4856㎡	19억 원	1월 15일	23억7000만 원	12월 29일

※출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최고가였던 32억 원(11월 13일)에서 한 달 만에 2억5000만 원 뻗었다.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의 대형 평형 매매가도 최근 신고가를 기록했다. 전용 126.928㎡가 12월 23일 33억5000만 원에 매매됐다. 이 면적으로는 6개월 만에 거래가 성사된 것인데 가격은 무려 8억3000만 원이나 올랐다.

수서동 '강남 더샵 포레스트'의 경우 전용 114.4856㎡가 지난해 1월 19억 원에 거래된 이후 한동안 잠잠하다가 12월 29일 23억7000만 원에 신고가를 기록하며 매매됐다. 매매가는 그 사이에 4억7000만 원 뛰었다.

고가 아파트라고 모두 신고가를 경신하는 것은 아니다.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는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에서는 전용 76.79㎡의 호가가 12·16 대책 발표 이전인 20억5000만~21억 원에서 19억8000만~19억9000만 원으로 낮아졌다.

그나마 매물도 없는 상황이다. 강남구 대치동 A공인중개사는 "전세는 2억 원 정도 올라서 계약되는데 매매는 거래가 끊겼다"며 "‘쭈쭈’(쭈고 또 쭈는다는 약어) 수요가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초구 잠원동 H공인중개사도 "12·16 대책 이후 거래 문의가 멈췄다"며 "(아크로리버

파크) 전용 84㎡ 이상이 30억 원을 넘긴 하지만 대부분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대형 평형 아파트의 최고가를 잡아치우는 것은 12·16 대책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부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12·16 대책은 9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금융규제를 강화했다. 먼저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을 기존 40%에서 20%로 줄였다.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금지했다. 금융권에서도 대출 자체를 해주지 않는 사례가 없

었다고 입을 모은 만큼 강수를 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에도 금융권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계층은 대책 이전과 별 다를 게 없다는 분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5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존에도 대출에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12·16 대책 영향이 없다"며 "대책 영향을 받는 아파트는 시가 9억~15억 원이고, 당분간 이 구간의 아파트 시세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9억 원 이하 아파트의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15억 원 이상 아파트의 시세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아파트 가격 구간별 상이한 흐름은 올해 상반기까지 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4월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6월 말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끝나는 이슈가 나올 때 주택 시장은 또 한번 변곡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서지희 기자 jhsseo@
박종화 기자 pbell@





빛 나는 하루 빛 나는 피부

이너셋 허니부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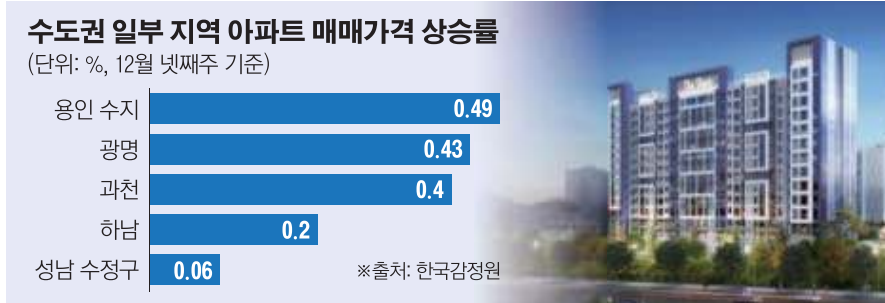
THE 더 예뻐지고 19 허니부쉬
THE 더 아름답고 19 허니부쉬

이너셋 허니부쉬 ▼

검색

*부원료 :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함유

고객센터 : 1800-4414



과천·광명·하남 위에 용인 수지 ‘리모델링·갭 메우기’로 고공행진

지난해 마지막주 집값 0.49% 올라
고강도 대책에도 상승 기대감 여전

경기도 용인 수지구의 집값 오름세가 주저 선호도가 높은 또 다른 수도권 지역인 과천·성남을 뛰어넘고 있다. 일부 단지들의 리모델링 열풍에 수지구 전반의 갭 메우기 현상이 맞물린 영향이다. 강도 높은 대책에 상승세는 한풀 꺾였지만 교통망 등 주거 여건 대비 저평가돼 있다는 인식에 호가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분위기다.

3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월 넷째주 경기도 용인 수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49% 올랐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여파로 관망세가 확산하면서 전주(0.93%)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경기도 시·군·구별 상승폭 중 여전히 세 번째로 높다. 수도권에서 서울의 웬만한 지역보다 인기가 높은 과천(0.40%)·광명(0.43%)·하남(0.20%)·성남 수정구(0.06%)의 오름폭을 뛰어넘는다.

전문가들은 이 지역 집값이 이처럼 뻗

데는 일부 단지들의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본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풍덕천동 초입마을(삼익·풍림·동아) 아파트다. 1994년 준공한 25년 차 아파트로 이달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리모델링 사업에 돌입했다. 리모델링 사업 호재에 지난달 최고 4억 원에 거래되던 초입마을 풍림아파트 전용 59㎡가 이달 4억5000만 원으로 한 달 사이 5000만 원이 뛰었다. 현재 호가는 5억1000만 원대다.

서울을 비롯한 인근 수도권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것에 따른 갭 메우기 현상이 맞물린 것도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풍덕천동 일대 G공인 관계지는 "리모델링 이슈도 한몫을 했지만 최근 집값 상승세에 갭 메우기 영향도 컸다"며 "신분당선 같은 교통이나 학원가 형성 등 교육 여건이 좋게도 과천과 성남, 하남 등과 비교해 너무 저평가되고 있다는 인식이 최근 들어 강해지면서 강도 높은 대책이 나왔는데도 집값 상승 기대감이 여전해 호가가 내려가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목동 재건축 탄력받나...6단지 안전진단 첫 통과

목동 신시가지 6단지가 정밀안전진단에 통과했다. 재건축을 준비 중인 목동 신시가지 단지 중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은 처음으로, 목동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1일 정비업체와 양천구청에 따르면 목동6단지가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다. 목동 6단지는 D등급을 받

으면서 조건부 재건축 가능 판정을 받았다. 목동 재건축 단지 중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것은 6단지가 처음이다.

최근 양천구 목동 재건축의 걸림돌이었던 1~3단지 중상향 문제가 서울시 심의를 통과한 데 이어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나오면서 목동 재건축 사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문선영 기자 moon@

〈부산대 의전원 600만원〉

“딸 장학금 뇌물” 조국 불구속 기소

檢, 위조공문서행사·뇌물수수·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

사모펀드 보고서 위조 지시하고
아들 온라인 시험 대신 봐주기도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1일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중앙대 교수 등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11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 등과 공모해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에정증명서, 인턴확인서, 미국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등을 허위로 발급해 제출해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아들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한 과목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딸 조모 씨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해 뇌물수수, 부정정탁및금품수수의금지 위반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비리 의혹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민정수석 임명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코링크PE 주식, WFM 주식 등을 보유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8억 원 상당의 코링크PE 주식 차명보유 사실 은폐를 위해 관련 내용을 허위 신고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공모해 수사가 시작된 뒤 사모펀드 의혹 관련 코링크PE 관계자들이 운용현황 보고서를

위조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압수 수색에 대비해 증권사 직원에게 자택 PC 하드디스크와 중앙대 교수실 컴퓨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정경심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관련 혐의 및 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구속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병합 신청했다”며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전 장관 측은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며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모펀드 관련한 검찰의 기소 내용은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이고 증거는 닉과 위조 교사, 뇌물수수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하나 하나 반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수현 기자 int1000@



한파가 빚은 예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31일 강원 화천군 북한강 상류 탄산유원지 인공폭포가 꽁꽁 얼어붙어 있다. 뉴스스

“수도관 얼었을 때 ‘뜨거운 물’ 안돼요”

50도 넘으면 고장… 서울시설공단 상수도 동파 관리 총력

서울시설공단이 겨울철 상수도시설 동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처에 나선다.

31일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 겨울인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서울에서 1636건의 수도계량기가 동파됐다.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하는 계량기(208만9912건)의 0.08%다. 이번 겨울에만 27일까지 동파 피해 103건이 발생했다.

서울시설공단은 상수도 시설 동파에 대비해 내년 2월 말까지 토요일, 공휴일에도 교체반을 상시 편성 운영해 수도계량기 동파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검침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격 검침을 적극적으로 진행한다. 보온덮개, 동파 방지팩 등 계량기 보온 조치도 강

화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동파 예방 방법도 소개했다. 계량기 보호통 내부를 헌옷 등의 보온재로 채워주고 혹한기에는 수도꼭지를 열어 수돗물이 조금씩 흐르게 해야 한다. 계량기나 수도관이 얼었을 경우 미지근한 물부터 시작해 점차 따뜻한 물을 사용하거나 헤어드라이를 이용해 녹여야 한다. 50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녹이면 고장 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겨울철 계량기가 동파됐거나 상수도 누수가 발생했을 때에는 국번없이 120 다산콜센터 또는 각 수도사업소 민원안내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동파 예방 및 동파 시 신속한 처리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줄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희 기자 jh6945@

‘대북확성기 입찰 비리’ 업체 대표 징역 3년

대법 “안보에 심각한 위협”

브로커도 징역 1년 6개월

박근혜 정부 시절 대북 확성기 사업 비리에 연루된 업체 대표와 브로커 등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음향기기 업체 인터엠 대표 조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 양주시 시의원 임모 씨에게 4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대북 확성기 사업은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이후 북한 전방부대를 목표로 한 심리전 강화를 목적으로 고정형 확성기 24대, 기동형 확성기 16대를 신규 도입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 씨는 당시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확성기 사업 추진 태스크포스 계약담당자 등에게 로비를 벌여 낙찰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대북 확성기 사업 과정에서 저지른 입찰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범행으로 인해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에 대한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며 “국방 관련 비리는 그 자체로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조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조 씨와 국군 심리전단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차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또 조 씨에게 뇌물을 받은 양주시 시의원 임모 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 벌금 4000만 원이 확정됐다.

정수현 기자 int1000@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1월호 발매

시니어 공감 매거진

BRAVO

Monthly Magazine

My Life

302호 01월호

연세 최장수 세리
가장 인기 있는 시니어
소셜 미디어

최장수, 가장
활기찬, 가장
즐거워야 할 나이

있는 그대로
재미있게
사는 법을
공유합니다

1000여
를 찾아서

상대 25% 이상
증가한 인기

최고 노인
전문주의

Well Aging

월간 매거진, 멋진 에이징의 시작

COVERSTORY 웰컴, 에이징

- PART1. 나이 불의 미학 - 늙음과 늙음, 한 획 차이
- PART2. 나이만큼 아름다워지는 삶 - 나이 들의 품격, '어르신나'에게 듣는다
- PART3. 노화의 선물 - 백발이 빛 발하는 나이
- PART4. 나이가 아닌 품격을 엮다 - 스타일 나는 인생
- PART5. 웰에이징 설명서 - 나이 막으면 좀 아껴
- PART6. 우리들의 특권 - 화려한 VIP '오달세대'를 위하여!!
- PART7. '2019 제1회 KMA시니어모델 선발대회' 수상자 - 제2의 멋진 인생을 열다



귀촌

귀농으로 얻은 경제, 그리고 긍정의 힘

그녀는 오랫동안 암 투병을 했다. 유방암 일기 전단을 받았었다니 실로 격렬한 싸움이었을 것이다. 음산한 죽음의 공기를 숨 쉬며 처절하게 견뎌냈다. 알고 보면 허둥여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게 죽음이라는 고상한 소식도 있지만, 입단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본능이지 않은가. 한때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려했었다는 이운경씨 씨는 불굴의 의지로 결국은 10여 년 만에 암을 물라냈다. 투병 후반기 귀농이 일종의 묘약이었다.

신라비가 만난 사람



“직원이 추천한 회사를
만들어서 행복하다
연세 최장수 세리
가장 인기 있는 시니어
소셜 미디어



“있는 그대로 재미있게
사는 것이 중년의 맛
백수 총요청, 젊은 길을 걷는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말한다



불기락이 파범적
오방난전야! 되더라도
출타기 명인
김대균

두어 가이드

중세와 현대의 절묘한 조화를
보여주는 불의 도시 '바쿠'

신과 신화 인간들의 이야기가 공생한
코카서스 3국의 첫 번째 여행지는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Baku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첫 여행지가 됐다.



한글해 갈릴 진수성찬 없어도 입맛 절로 나는 새내기와 우거지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이런 의문에 대한 스스로 미약하게
물어본 해답들을 이야기하고 싶다. 부족한 재주로
나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틀릴 수도 있다.
여러분의 얼굴은 자책도 기대한다.

시니어 밥상

홈메이드 사찰음식+
향산화 성분 가득,
카카오닙스 활용 레시피

프로 골매 김용준 칼럼

김용준
돌아오라
돌 왓슨이여



고객감사 이벤트! 마지막 찬스!!

반값 할인

고객감사 이벤트로 아쿠아픽 제품 100개 세트구성
(뉴아쿠아픽 AQ-300 + 아쿠아픽 코드리스 AQ-220)으로
고객님들의 건강한 겨울을 기원하는 프리미엄 할인 행사!!!



가정용

- ① 제품명 뉴아쿠아픽(좌측)
모델명 AQ-300
구성품 본체, 제트팁 4개, 제트팁걸이 4개
제품크기 150x90x210mm
맥동수류 2,200회/분



현대웅

- ① 제품명 아쿠아픽 코드리스(우측)
모델명 AQ-220T
구성품 본체, 제트팁 2개, 충전 어댑터
제품크기 70x100x300mm
제품무게 440g(본체 260g, 충전기 180g)
맥동수 1,400회/분

▲휴대용(무점점 충전 거치대 포함)

대한민국 치과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추천하는
프리미엄급 구강세정기 뉴아쿠아픽 AQ-300 / 아쿠아픽 코드리스 AQ-220



아쿠아픽 제품만의 강력한 맥동수류

아쿠아픽의 강력하고 뛰어난 맥동수류(탁탄 끊어져 나오는 물줄기)는 치아와 잇몸 사이의 음식물 찌꺼기와 프라그를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 이를 통해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내를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잇몸 마사지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 잇몸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음식물찌꺼기 제거
잇몸마사지 효과교정환자의
효율적인 치아관리

임플란트 주위염 예방



하나의 제품으로 가족 모두가 사용 가능
뉴아쿠아픽 AQ-300 (4개의 제트팁)



- **고정장치, 임플란트, 보철물** 등의
장착 환자 추천
- **분당 평균 왕복 2,200회** 맥동수류
- **구강건강을 위해 가족 모두가 사용 가능**
- **기능성/편리성/만족성**을
모두 갖춘 뉴쿠아픽
- 노약자, 어린이도 쉽게 조작
- **수업 조절 가능한 다이얼**
- **인체 무해한 친환경적 소재의 호스**
(한국·일본·유럽연합을 통과한 의료기기인증)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휴대용
아쿠아픽 코드리스 AQ-220



- 안전하고 편리해진 무접점 충전방식
- 24시간 완충 시 최대 2주 사용 가능
- 0.6mm 강력한 초미세 물줄기
- 초경량 바디(260g)
- 분당 1,400회 맥동수류
- 인체공학적 제트링 설계
- 세기가 세정모드
 - NORMAL 일반적인 세정모드
 - SOFT 치아가 예민한 분을 위한 세정모드
 - PULSF 위생 마사지 적용 모드

100세트 한정판매 ~~296,000원~~ **148,000원** (49,333원×3 카드 3개월 무이자) | 주문전화 **080-388-7000**
 토스페이먼츠가 보증 | 재 2014-서울주거-0060

통신판매업자신고번호 : 제 2014-서울중구-0505호

“독립운동가 피규어로 ‘한국형 어벤저스’ 꽃피울 것”

위인 피규어 제작 스타트업...김은총 위세임 대표

백범 김구·안중근 의사 등 수작업 한정수량 생산 완판 기록
수익 일부 독립운동가 후손에 기부...위인 IP 활용사업 계획

아이디어는 있지만 판로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작품 판매 업체에 공간을 만들어주는 스타트업 전문 ‘비비마켓’에는 다양한 업체가 입점해 있다. 그중에서 유독 눈길을 끄는 업체가 있는데, 독립운동가와 우리나라 위인을 피규어로 제작하는 ‘위세임(WESAME)’이란 스타트업이다.

위세임을 이끌고 있는 김은총 대표는 한 달에 한 번씩 대상 인물을 정해 피규어를 제작한다. 이 피규어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대중에게 선보이면서 피규어 수집가들은 물론 독립운동가와 위인들을 기리는 소비자들에게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김 대표가 제작해 선보인 제품으로는 백범 김구 선생, 안중근 의사 피규어가 있다. 대한독립 운동에서 핵심적인 인물인 두 위인의 피규어는 제작 초기부터 아이디어 자체만으로도 호평이 쏟아졌다.

김 대표가 위인들의 피규어를 제작한 이유는 딱딱하게 학교 수업을 통해서만 배웠던 역사 속 인물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에서였다. 이 때문에 김 대표는 위인 피규어 제작에 있어 역동적인 느낌과 생생한 표정을 살리기 위해 세밀한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안간힘을 썼다고 한다. 피규어 제작 전문가를 초빙하는 등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에도 공을 들였다.

김 대표는 위인 및 독립운동가 피규어를 대중들에게 더 많이 알리기 위해 비비마켓에 한시적 할인 특가도 진행했다. 덕분에 위인프로젝트 안중근 의사, 김구 선생 피규어는 비비마켓에서 문장한 지 얼마되지 않아 완판을 기록했다.

김 대표는 비비마켓과 함께 추가 피규어 론칭도 준비하고 있다. 위세임의 피규어 제품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 한정 수량만 제공한다. 김 대표는 “단순히 돈벌이 수단의 사업이 아닌 애국심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하고 있다”며 “소규모 한정수량을 제작하는 것 역시 그와 같은 경영 철학을 지



키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대표는 위세임 피규어 판매 금액 일부를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에도 힘쓰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의 경제보복 등으로 반일 감정이 고조된 상황이라 과거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위해 맞서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의 피규어가 특히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김 대표는 독립운동가와 위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시작한 작은 노력이 더 많은 투자자, 소비자들의 지원과 응원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위인 피규어 프로젝트 사업에 더 큰 애착을 갖게 됐다고 한다. 이 때문에 앞으로 김 대표는 위인 및 독립운

독립운동가와 위인을 피규어로 제작하고 있는 김은총 위세임 대표. 김 대표는 “회사가 좀 더 커지고 사업이 활성화되면 ‘위인 스튜디오’를 만들어 위인들의 IP(지식재산)를 활용한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위세임



동가 피규어 제작에 다양한 실험을 선보일 계획이다.

미국 마블사의 어벤저스 시리즈가 만화와 애니메이션으로 시작해 영화산업으로 발전, 전 세계적인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는 만큼 위세임 프로젝트 역시 ‘위인스튜디오’ 등으로 규모화해 ‘한국형 어벤저스’로 꽃피우겠다는 다부진 각오다.

김 대표는 “역사적 사실과 독립운동에 대한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싶다”며 “회사가 좀 더 커지고 활성화되면 ‘위인스튜디오’를 만들어 위인들의 IP(지식재산)를 활용한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yes@

우리신탁, 이창재·이창하 공동대표



우리금융이 지주사 출범 후 처음으로 인수합병한 우리자산신탁에 이창재<왼쪽 사진> 우리증권 부사장과 이창하<오른쪽> 전 국제신탁 대표가 공동 선임됐다.

우리금융은 31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창재 신임대표는 우리증권 기업금융본부 겸 구조화금융본부 총괄 부사장으로 재직했으며, 과거 우리은행 재직 시 KPI 우수 영업점장과 영업본부장으로 수차례 선정됐다. 이창하 신임대표는 대한토지신탁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국제자산신탁으로 자리를 옮겨 대표이사까지 지내는 등 부동산신탁 업계 전문가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박선현 기자 sunhyun@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
350명 선발해 증서 수여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제25기 해외 교환 장학생 350명을 선발해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사진>

미래에셋 해외 교환 장학생 프로그램은 해외 교환학생 가운데 인재를 선발해 학비와 체제비를 지원하는 미래에셋의 대표적인 사회공헌사업이다. 교환학생 장학사업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장학생 대표로 소감을 발표한 김수동 서울대 전기정보공학과 학생은 “교환학생은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위한 소중한 기회”라며 “교환학생 이후 변화될 스스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외국에서의 하루하루를 긍정적 자국이 되도록 생활하겠다”고 말했다. 수여식에 참석한 정운찬 미래에셋 박현주재단 이사장은 “교환학생을 통해 스스로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져보는 시간을 가져 한층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에셋은 2000년 재단 설립 후 ‘젊은이들의 희망이 되겠습니다’란 기치 아래 다양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진행, 해외 교환 장학생을 비롯해 총 9446명의 장학생을 지원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부음

▲서정득 씨 별세, 조동의 씨 남편상, 서강석(동아일보 출판국 출판광고팀 여성동아광고파트장)·영미 씨 부친상, 권한숙 씨 시부상, 하동용(청야한의원 원장) 씨 장인상 = 30일, 고려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203호실, 발인 1일 오전 10시, 02-927-4404

▲곽래영(전 삼흥산업 대표) 씨 별세, 박보익(전 TBC 대구방송 이사)·유진·중철(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명예교수)·동훈(전 쓰리엠 미국 본사 본부장) 씨 부친상, 남봉우(남외과의원 원장) 씨 장인상, 박정렬(외교부 정책기획담당관실 서기관)·석렬(우아한형제들 변호사)·창렬(조선일보사회정책부 기자)·준렬(포스코아메리카 과장)·정민(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 부부장)·예진(재미 약사) 씨 조부상 = 31일, 대구 모래야장례식장, 발인 1월 3일 오전 8시, 053-801-9999

인사

◆국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임명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배용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권영진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용준 △정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연호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차인순

◆행정안전부 ◇실장급 정보 △안전정책실장 윤종진 ◇실장급 승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강성조 ◇국장급 정보 △지방재정정책관 이용철 △지방세정책관 서철모 ◇과장급 정보 △행정정보공유과장 박대민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 관리과장 전인철 △기획총괄과장 진주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과장급 임용 △정부청사관리본부 과천청사관리소 시설과장 임상덕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급 임용 △비상안전기획관 우승용 ◇과장급 정보 △콘텐츠기획과장 정인규 △한국종합예술학교 교무과장 정성욱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총괄과장 진주원 △어린이청소년도서관 행정지원과장 조현아 △한국정책방송원 방송보도부장 김성경 △뉴미디어소통과장 이정미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정보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 양주필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정보 △정책기획위원회 신남방정책추진단 안병화 ◇과장급 정보 △재생에너지산업과장 오승철

◆중소벤처기업부 ◇과장급 정보 △지역기업육성과장 서기관 삼재운 △기술개발과장 기술서기관 윤세영

◆공정거래위원회 ◇전보 △소비자거래실태담당관 김성곤 △가맹거래조사팀장 황태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곽형석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연구석 ◇승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구성필 △가솔유류감시팀장 문종숙 ◇파견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배현정 ◇고용휴직 △대법원 이하나

◆특허청 ◇과장급 정보 △환경기술심사팀장 원종혁 △동력기술심사과장 조지훈 △제약기술심사팀장 임해영 △특허심판원 심판관 고준석 △ 좌승관 △ 이경홍 △특허심판원 송무과장 변영석

◆금융위원회 ◇과장급 정보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권유이 △의사운영정보팀장 김정명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정보 △편지 △청탁금지제도과장 유현숙 △국제기구 유엔개발계획(UNDP) 반부패정책전문관 파견 손정오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진 △혁신기획담당관 임종윤 ◇전보 △내·외원성원전지역사무소장 배종근

◆한국소비자원 ◇1급 승진 △정보교육과장 박정용 ◇부서장 정보 △대외홍보실장 김만호 △정보교육과장 장은경 △보정조정장사무과장 문태현 △정책연구실장 배준영 △시험검사국과장 이상호 △경기지원과장 원해일 △감사실장 최은실

◆국토연구원 △국토환경·자연연구본부장 김강현 △국토인프라연구본부장 오성호 △건설경제산업연구본부장 준비대준 윤하중

◆한국전력연구원 △초전도연구센터장 김해중 △전력변환시스템연구센터장 이종필 △디지털에너지시스템연구센터장 김종율 △전기의료기기연구센터장 박영진 △RSS센터장 배수진 △대전력시험실장 박승재 △미래전략실장 김태현

◆한국원자력연구원 ◇소장 △융복합양자과학연

구소장 박승일 ◇단장 △혁신원자력기반조성사업단장 우상익 ◇부·센터장 △혁신계통안전연구부장 박형식 △디지털기술원전기술개발부장 윤현영 △기기구조예측진단연구부장 최인길 △로봇융합연구부장 정경민 △재료안전기술개발부장 김대규 △하나로운영부장 신진원 △연구로공학부장 박수기 △양자빔물질과학연구부장 유원욱 △핵물리융합연구부장 이동원 △방사성폐기물처리연구부장 조동건 △핵주기기반기술연구부장 이호직 △다목적계통기술개발부장 김태완 △차세대핵연료기술개발부장 천진식 △혁신원자력기반조성사업단 사업기획부장 송승현 △혁신원자력기반조성사업단 사업관리부장 이종민 △원자력교육센터장 김신애 △감사부장 안종현

◆한국무역협회 ◇신규 보임 △혁신생태계실장 박선경 △MICE추진실장 이상현 △신성장연구실장 심윤섭 △울산지역본부장 김경철 △전보 △비서실장 박성환 △기획조정실장 김병유 △회원서비스실장 주동필 △블류서비스실장 김경용 △남북협력실장 전종찬 △국제협력실장 장석민 △온라인마케팅실장 이영호 △MICE전략실장 박경진 △취업연수실장 홍사교 △글로벌연수실장 박형선 △FTA활용정책실장 김일산 △부산지역본부장 김중환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이관재 △경기남부지역본부장 박준 △강원지역본부장 박철용 △뉴욕지부장 이상준 △베이지지부장 박민영 △호찌민지부장 이동원 ◇승진 〈1직급〉 △정책협력실장 권도경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김용태 △부산지역본부장 김중환 △국제협력실장 장석민 △화원서비스실장 주동필 △인사총무실장 한창희

◆해외건설협회 ◇승진 △이사대우 김성진 회원지원본부장 ◇전보 △이사대우 박형원 정책지원본부장 △김윤중 기획관리실장 △김태영 아시아실장(회원지원실장 겸직) △신동우 아·중동실장 △이수형 정보화지원실장 직무대리

◆건설공제조합 ◇승진 △공제사업실장 이택환 △자산운용실장 강도영 △영남보상센터장 윤찬영 △전보 △경영지원실장 김성희 △정보화지원실장 박종석 △보증사업실장 이창희 △연수원장 조태봉 △감사실장 이일광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서장 △비서실장 김성호 △홍보실장 송진선 △미래혁신실장 박동선 △안전기획실장 장철국 △감사실장 윤우준 △기획조정실장 박봉규 △경영관리실장 변한수 △사업계획실장 정성시 △재무처장 윤복산 △판매기획처장 이상기 △보상기획처장 안창진 △총무고객처장 홍준표 △인사관리처장 이지순 △노사협력처장 유석대 △법무실장 양치훈 △경영정보처장 이영미 △인재개발원장 조경숙 △공정계약담당장 이현수 △주거복지기획처장 조인수 △주거복지사업처장 강기관 △주거복지지원처장 김경철 △주거자산관리처장 백기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장 박상수 △중앙공동주택관리보장조정위사무국장 김철수 △스마트도시계획처장 김동근 △스마트도시개발처장 신광호 △공공택지사업처장 이병만 △도시사업처장 신정철 △도시기반처장 안한근 △공간정보처장 권운희 △사업영향평가담당장 정성운 △도시경관담당장 정수미 △도시사업부문장 정은구 △신도시사업처장 정은섭 △공공주택기획처장 이재로 △공공주택사업처장 박철홍 △공공주택설비처장 이재현 △공공주택전기처장 한학규 △공공주택인가처장 조하영 △미래건축부문장 서호수 △고객품질혁신팀장 류옥현 △지역균형발전처장 권세연 △산단단

지처장 이재용 △부동산금융사업처장 조은숙 △국유재산사업처장 강진성 △부동산금융사업관리담당장 유승곤 △글로벌사업처장 이정관 △남북협력처장 강구황 △크루에이트사업담당장 이종우 △도시재생계획처장 백대현 △도시재생사업처장 이상민 △도시정비사업처장 박현민 △도시재생주택처장 김경민 △도시건축사업담당장 이화식 △토지는행기획담당장 윤호경 △단지기술처장 전운수 △주택기술처장 이택훈 △건설관리처장 김형식 △기술심사처장 이명하 △동반성장처장 황선규 △연구지원처장 강진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승진〉 ◇부서장 △기획조정실 김범곤 △인사처 김기태 △보증이행처 차주천 △준법지원실 박종운 △감사실 문석 △동부PF금융센터 김미선 △서부PF금융센터 위광진 △경기지사 신종화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 이흥식 △중부주택도시금융센터 윤영국 〈전보〉 ◇부서장 △기획조정실장 김기태 △인사처장 광경섭 △경영관리처장 전정희 △정보기획처장 윤영국 △정보운영처장 김진열 △리스크관리실장 김현민 △준법지원실장 박종운 △동부PF금융센터장 김민환 △남부PF금융센터장 위광진 △서울북부지사장 이호철 △서울동부지사장 김옥주 △서울서부지사장 우종섭 △서울남부지사장 김범곤 △대구경북지사장 신종화 △대전충남지사장 차주천 △경기지사장 임운순 △충북지사장 이흥식 △경남지사장 박종운 △스마트전세지원센터 개설준비위원장 서상원 △채권관리실장 윤명규 △보증이행처장 박종진 △서울북부관리센터장 배재훈 △서울서부관리센터장 이무송 △영남관리센터장 지형진 △중부관리센터장 공대은 △기금관리실장 강신균 △기금지원처장 김중서 △도시재생지원처장 이규탁 △남부주택도시금융1센터장 김진욱 △남부주택도시금융2센터장 강원석 △중부주택도시금융센터장 김중현 △기금대출지원센터장 김미선 △리츠자산관리센터장 정태선 △홍보비서실장 문석 △주택도시금융연구원장 노찬현 △감사실장 허준문

◆한국공항공사 ◇본부장급 정보 △항로시설본부장 김승호 ◇공항장 및 실장급 정보 △스마트공항추진실장 차상훈 △사회기차추진실장 김광덕 △건설사업실장 최준용 △항공산업연구원장 강지석 △감사실장 김경화 △무안공항장 이재철 △광주공항장 홍정표 △포항공항장 조용국

◆부산항만공사 ◇1급 정보 △재무회계부장 오세안 △항만운영실장 김재일 △신항사업소장 노준호 △감전사업소장 서보성 ◇2급 정보 △항만산업부장 간주태 △첨단항만실장 박선정 △개발사업실장 김병수

◆신한생명 〈승진〉 ◇부서장 △경영기획그룹 이재균 〈신규 선임〉 ◇부사장보 △DB마케팅그룹 김태환 △FC사업그룹 오동현 ◇상무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원경민 ◇본부장 △ICT본부 김주홍 △FC사업본부 배형철 △B2B사업그룹 이영재 △고객지원본부 이의철 △재무본부 서동수 〈전보〉 ◇본부장 △CPC전략그룹 임상현

◆DB손해보험 ◇부서장 승진 △시스템기획파트 윤원기 △인사파트 김영희 △장기U/W기획파트 김정훈 △장기U/W센터하강음 △SIU지원파트 신배식 △수도권장기보상부 옥정환 △동서울대인보상부 이원호 △대구대인보상부 박상현 △용자부 오승준 △부동산금융부 임장희 △인프라금융부 박상면 △월산사업단 정해천 △동부사업단 권승필 △원주사업단 조운호 △안양사업단 김도완 △평택사업단 김진혁 △진주

유럽은 지금



안 병 익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제 보수당은 안정적인 과반을 확보해 영국은 EU에서 탈퇴한다. 그러나 시작일 뿐이다. 존슨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EU와의 신관계를 올해 안에 매듭짓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올해 12월 31일까지의 과도기를 연기하지 않겠다는 것. 전문가들은 영국과 EU의 포괄적 신통상 관계가 1년 안에 체결될 가능성을 아주 낮게 보고 있다. 때문에 올 하반기 ‘노딜’ 리스크가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붉은색이 어떻게 푸른색으로 바뀔 수 있을까? 지난달 12일 영국에서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이런 마법이 일어났다. 북부와 중부 잉글랜드는 과거 번창했던 제조업의 중심지로 노동당의 아성이었다. 그런데 보수당이 수십 년 만에 이곳 선거구의 절반을 쟁취했다. 하원 전체 의석 650석 가운데 보수당은 365석을 얻어 32년 만에 압승했다. 노동당의 적색 텃밭이 갑자기 보수당의 청색으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왜 노동당을 지지해왔던 이곳의 유권자들이 이탈했는가? 이번 총선에서 제1 야당인 노동당은 겨우 203석을 얻어 1935년 이후 최악의 결과였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라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그리고 인물, 선거공약의 문제점이 결합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번 총선은 브렉시트를 두고 의회가 보인 결정 장애를 타개하려고 실시되었다. 집권 보수당의 일부는 경제에 큰 손실을 끼치는 강경 브렉시트를 고집했다. 반면에 하원의원의 과반은 손실을 최소화하는 브렉시트를 원했기에 강경 브렉시트를 저지했다. 하원이 브렉시트 조약을 비준하지 못하는 상황이 10개월 넘게 계속되자 당시 보리스 존슨 총리가 조기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지난해 7월 말 당수 교체로 선거 없이 총리가 된 그는 강경 브렉시트를 고집하면서 사실상 조기총선을 유도했다.

보수당의 선거공약은 ‘브렉시트 완수’로 아주 간단명료했다. 반면에 노동당은 가장 급진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철도와 전기, 가스 같은 주요 기간산업의 국유화, 근로자 250명 이상을 고용 중인 기업은 주식의 10%를 노동자 대표가 운영하는 기금에 증여, 한마디로 1980년대 보수당의 대처 총리가 단행했던 정책을 반복하려 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커져 온 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대안이 나왔다. 그렇지만 유권자들, 특히 노동자들의 브렉시트 피로감이 너무 컸다.

이번에 보수당이 빼앗은 노동당의 아성은 3분의 2 정도가 브렉시트를 지지했다. 노동당은 브렉시트 문제로 내분을 거듭하다가 경제에 덜 피해가 가도록 EU와 재협상을 하고 이를 국민투표에 회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노동당을 지지했던 노동자들은 이를 배신으로 여겼고 상당수가 브렉시트 완수를 강조한 보수당으로 돌아섰다.

여기에 인물의 호불호도 한몫했다.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당수는 평생을 급진 좌

파로 살아왔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탄압한다는 신념을 지닌 그는 수차례 당에서 불거진 반(反)유대주의에 마지못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영국은 항상 역사의 승자 편에 서 있었다는 자부심에서 반유대주의를 비판하는 게 상식이다. 보수당의 존슨은 전형적인 포퓰리스트 정치인이다. 그런데도 반유대주의가 발목을 잡아 총리 적합도에서 존슨이 코빈보다 10% 정도 앞섰다. 노동당의 급진정책에 대해서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우려했다. 공약대로 기업 주식의 10%를 노동자에게 이관하면 기업이 수익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노동당은 양대 지지층인 지식인과 노동자 가운데 이번에는 지식인에 치우친 공약을 제시했다. 이당은 2010년부터 네 번이나 총선에서 연패했다.

아무리 좋은 공약이라도 적절한 시기에 신뢰할 만한 인물이 유권자에게 다가가야 한다. 그러나 노동당은 핵심 지지층의 하나인 노동자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 상당수의 노동자들은 2016년 6월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에서 EU 탈퇴를 지지했다. 경제에 손해가 뒀을 알았지만 정체성을 훨씬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이들은 너무 많은

EU 시민들이 영국으로 몰려와 자국이 정체성을 잃는다며 EU 탈퇴를 원했다.

이제 보수당은 안정적인 과반을 확보해 영국은 EU에서 탈퇴한다. 그러나 시작일 뿐이다. 영국 무역의 절반을 차지하는 EU와 긴밀한 경제적·비경제적(정치·외교안보) 관계를 맺는 게 영국의 국익이다. 그런데 존슨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EU와의 신관계를 올해 안에 매듭짓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올해 12월 31일까지의 과도기를 연기하지 않겠다는 것. 전문가들은 영국과 EU의 포괄적 신통상 관계가 1년 안에 체결될 가능성을 아주 낮게 보고 있다. 때문에 올 하반기 ‘노딜’ 리스크가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영국이 EU의 규정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규정을 만들수록 EU 단일시장 접근은 줄어들고 영국 경제에 손실이다.

보수당은 이번에 표를 얻은 북부 및 중부 잉글랜드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2017년부터 3년간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야기한 불확실성 때문에 영국의 경제성장률은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보다 낮았다. 정부 주머니는 두둑하지 못한데 경제성장률은 하락 중이고 쓸 돈은 많아졌다. 집권 보수당이 이번에도 마법을 부릴 수 있을까?



성아영의
발명 이야기

대구가톨릭대 바이오메디칼대학 교수

쌀밥을 주식으로 삼던 전통적 식생활 습관 때문에 설날에도 떡국을 만들어 먹는 우리 민족에게, 밀가루를 이용한 새로운 즉석식품으로 한 끼 대용이 가능한 라면은 첫 등장 이후 폭발적 수요를 이어가고 있다. 라면이라는 기초 베이스를 응용한 여러 식품이 잇따라 선보이며 다양한 맛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지만, 애초 라면의 발명은 맛보다도 짧은 시간에 공복감을 해결해 보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이 발명을 처음 생각한 사람은 일본의 안도 모모후쿠(安藤百福)이다.

“밀가루를 이용하여 쌀밥 못지않은 주식을 개발할 수는 없을까?”

안도가 최초의 즉석라면을 만든 1958년, 이는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당시만 해도 밀가루는 부침, 빵, 국수를 만드

는 것 외에는 달리 사용처가 없었고, 누구도 밀가루의 새로운 용도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다. 안도는 모든 일을 뒤로 미루고 오직 밀가루에 파묻혀 살았다. 한 달 그리고 두 달. 시간은 흘러갔고, 끈질긴 연구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언제나 실패뿐이었다. 때사에 의욕을 잃은 그가 찾아가는 곳은 오로지 술집. 매일같이 술에 취해 살다보니 어느 사이 폐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술집을 찾았다. 술집 주인은 어묵을 기름에 튀기고 있었다. 순간 안도의 눈은 반짝 빛나며, 입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바로 저것이다!”

안도는 끓는 기름에 밀가루 반죽으로 된 덴뿌라를 넣는 순간 밀가루 속에 있던 수분이 순간적으로 빠져나오고, 튀김이 끝난 음식에는 작은 구멍이 무수하게 생기는 것을 관찰한 것이었다. 안도는 바로 연구실로 향해 어지럽게 흩어진 기구들을 대충

정리하고 서둘러 실험 준비를 마쳤다. 우선 밀가루를 반죽해 국수로 만들어 기름에 튀겨보니 국수 속의 수분이 증발되고 국수가 익으면서 속에 작은 구멍이 무수히 생겼다. 또 이것을 건조시켰다가 뜨거운 물을 붓는 순간 이번에는 작은 구멍에 물이 들어가면서 먹음직스런 국수가 되는 것이었다. 며칠을 보관해도 변함이 없었다. 드디어 안도가 라면 발명에 성공한 것이다.

안도는 사업가로서의 명성을 되찾으며, 라면 발명가라는 명에도 거머쥐었다. 이렇게 개발된 라면은 다른 국수와는 달리 면이 꼬불꼬불하다. 그 이유는 많은 양을 한정된 부피의 작은 포장지 안에 처리하기 위한 공학적 계산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즉, 직선보다 곡선 상태가 많은 양을 함축한다는 원리를 응용한 것이다. 그래야 공복감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지방 등 영양가를 높일 수 있다. 유통 과정에서 보존 기간을 오래 지속하려면 튀김 공정

에서 빠른 시간에 많은 기름을 흡수하여 튀겨지도록 수분 증발을 도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도 직선보다 곡선형이 좋다. 또한 상품가치로 보더라도 직선보다는 꼬불꼬불한 곡선형이 시각과 미각에 어울리는 미학적 가치가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탄생한 라면은 그 동안 수많은 변화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특별한 맛을 담아내고 조리 시간을 줄이는 많은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라면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공학적 구조에 변함없는 것을 보면 초기 수분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하는 핵심적인 기술이 여전히 가장 중요한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만들어진 기술에 응용을 가하고 여러 가지 융·복합적 사고를 접목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근간이 되는 원천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일본과의 수출규제 갈등을 보면서 새삼 실감하게 된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윌리엄 폭스 명언
“한 번 실패했다라도 중단 없이 나아가기를 계속하는 사람은 자신의 희망을 달성할 수 있다.”

미국의 영화제작자. 영화대부회사를 설립해 배급업을 시작하였고 제작에도 참여했다. 그는 폭스영화사를 설립하여 미국 영화의 60%를 지배했다. 후에 20세기영화사와 합병해 ‘20세기폭스필름’이 되었다. 오늘은 그의 생일. 1879-1952.

☆ 고사성어 / 천류불식(川流不息)
흐르는 물이 쉬어 없듯이 공부하는 사람의 행동거지 또한 이를 본받아 성실하게 꾸준히 노력하라는 뜻이다. 원전은 천자문(千字文). 또 논어(論語) 자한(子罕)편에는 공자(孔子)가 냇물이 쉬지 않고 흐르는 것을 보고 “물이로다”라고 탄식했다고 나온다. 이어 “가는 것은 이와 같겠지. 밤낮을 가리지 않으니[逝者如斯夫 不舍晝夜]”라는 공자의 말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흘러가는 냇물을 보며 인간도 저렇게 수양을 한다면 성인이 될 수가 있을 것이라는 탄식일 것이다.

☆ 시사상식 / 뉴어버니즘(New-Urbanism)
미국에서 시작된 새로운 도시계획운동. 무질서한 시기까지 확산 등으로 빚어진 도시문제를 진단한 뒤, 새로운 도시적 삶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의 운동. 도시문제의 해결방법으로 공공 공간의 부활, 보행자 위주의 개발, 도심 활성화 등을 주장한다.

☆ 유머 / 아들의 진심
아빠가 꿈을 얘기했다. “퇴직하면 할리데이비슨 사서 타고 전국 돌아다니다가 살만큼 살았다 싶으면 그때 절벽에서 세계 달려 생을 마감할 거다.”
아들의 고언(格言). “절벽 가까이에서 브레이크를 힘껏 잡으면 비싼 할리는 살릴 수 있을 텐데요.”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유혜림 자본시장1부/wiseforest@

부실 감추는 자산재평가

는 부채비율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과거에 취득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면 토지 재평가를 통해 부채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특히, 토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시세가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산재평가의 주요 대상이 토지인 이유다. 한 상장사는 작년 3분기 부채비율 200%를 소

폭 넘기는 시점에 자산재평가카드를 꺼내 들었다. 또 다른 상장사는 100억 원을 훌쩍 넘는 재평가 차액을 남기기도 했다. 물론 자산재평가가 잘못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취득원가와 시가평가, 두 방식의 장단점도 명확하다. 다만 간과해선 안 되는 하나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유형자산에 대한 장부상 가치만 변경될 뿐 영업실적이 나아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부채비율 숫자가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기업 체질이 개선된 것은 아니다. 몸무게가 줄었다고 해서 건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듯 말이다. 그렇기에 자산재평가가 단순히 부채비율 수치를 줄여서 기업 개선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하다. 부실함을 감추기 위한 목적은 더욱이 지양해야 한다.

다이어트의 진짜 이유는 더 나은 체질을 갖기 위한 목적이다. 기업이 부채비율 낮추기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사업전략으로 ‘기업 체질’을 개선해야 하는 이유다. 2020년은 경영전략으로 시장의 재평가를 받는 해가 되길 소망한다.

국세청의 빗썸 과세, 순리에 맞지 않다

최근 국세청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803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거세다. 외국인의 소득세를 빗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한 이치다. 하지만 문제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거나 없다는 점이다. 이에 국세청이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양도소득 대상(부동산, 주식, 파생상품 등)과 기타 소득 대상(복권당첨금, 원고료, 강연료 등)을 열거하고 있는 반면 가상화폐는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행 세법상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이익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는 소득세 부과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세법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기존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확인된 것이다.

데스크칼럼

최영희

IT중소기업부장



기획재정부는 이어 “주요국 과세 사례, 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자금세탁 방지 차원의 국제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과세 방안을 마련하는 중임에도 국세청이 과세를 결정한 것은 소득 발생 시점 이후 5년이 지나면 과세를 할 수 없어서다. 업계에선 국세청이 일단 때리고 보자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빗썸이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 대상인지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원천징수의 의무자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 또는 그 지급자의 대리인 또는 수임인이어야 하는데 빗썸은 암호화폐 판매자(매도인)에게 소득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순히 구매자와 판매자로부터 대금 수령 및 지급 업무만을 위임받아 수행할 뿐이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은 용어조차도 완벽히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가상화폐, 가상자산, 암호화폐, 암호자산, 디지털 화폐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내년 6월 회원국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

에 나서게 될 상황이지만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도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반면 암호화폐 발행을 준비 중인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암호법을 새롭게 시행한다. 1월 1일 시행되는 암호법은 암호체계를 국가의 기밀정보를 관리하는 핵심암호와 기밀정보를 보호하는 일반암호, 정부의 정보 인프라와 시민들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상용암호 등 3가지다. 이 중 핵심암호와 일반암호는 중국정부가 엄격하게 관리하는 한편 상용암호는 산업육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국인민은행은 주요국으로는 처음으로 가상화폐인 디지털 위안화 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거의 마친 상태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까지 블록체인의 육성에 국가 차원의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도 이번 논란을 계기로 가상화폐와 관련된 기본적인 체계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일단 기획재정부의 말처럼 과세를 하려면 가상화폐 산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 법적 지위를 먼저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과세를 하는 것이 순서다. 절차를 무시해선 법치가 존재할 수 없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그 산하기관인 국세청이 가상화폐 과세를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역시 순리에 맞지 않는다. 업계의 반발이 거센 이유도 당연하다.

che@

박선현의 편



금융부 차장

“2020년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최근 한 금융지주 회장이 임원들에게 한 말이다. 경자년(庚子年) 사업계획을 받아든 그는 자신의 30년 뱅커 생활에 올해가 가장 힘든 시기가 될 거라며 걱정했다. 그의 근심은 숫자에서 비롯된다.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신한·KB·하나·우리 금융지주의 올해 순이익은 11조420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11조7100억원)보다 2.5% 감소한 것으로, 5년 만의 첫 마이너스 성장이다.

더 큰 걱정은 지분을 받치는 기동뿌리, 즉 건전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실물경기가 위축되면서 기업 대출, 특히 중소기업 여신 연체율이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급한 불은 껐으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지난해 구조조정 대상기업 210곳 가운데 96%가 중소기업이었다. 400조 원을 넘어선 자영업 대출도 소비위축과 함께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위기 때마다 성장한 한국 금융산업

최저임금 인상에도 저소득층의 살림살이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식당과 편의점 사장님들의 곡소리는 여전히 울린다.

하지만 시계열을 돌려보면 한국 금융업은 위기 때마다 성장했다. 2008년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IB)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했을 때 전 세계 금융시장은 물론 한국도 아비규환이었다. 코스피지수는 900선 아래로 폭락했고, 환율은 달러당 1500원까지 치솟았다.

금융상품 수익률이 곤두박질치면서 ‘고등어펀드(반 토막)’, ‘갈치계좌(4분의 1 토막)’가 속출했다. 흥흥한 민심은 실물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급하게 돈(금리 인하)을 풀었고, 내수 활성화에 힘을 쏟았다. 수출시장을 개발도상국 등으로 다변화하고, 자원과 부품의 수입선을 늘리면서 체력을 키웠다. 그 결과 금융위기 당시 700bp(1bp=0.01%포인트) 선까지 치솟았던 신용부도스와프(CDS)는 최근 27bp까지 떨어졌다.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에도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의 경제 기초체력을 높이 평가했다는 얘기가. 그 덕에 한국의 금융발전지수는 3년 전 일본과 홍콩, 프

랑스 등을 제치고 세계 6위에 올라섰다.

1997년 환란(換亂) 때도 비슷했다. 한라, 삼미, 해태 등이 문을 닫으면서 몸통 경제는 격렬하게 흔들렸고, 은행들은 맥없이 무너졌다. 한일, 조흥, 평화은행 등이 문을 닫으면서 200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 금융을 쥐락펴락하던 ‘조상제한서(조흥·상업·제일·한일·서울)’가 사라졌다. 곳곳에선 ‘조기(조기 퇴직)’와 ‘명태(명예퇴직)’가 쏟아졌다.

하지만 우리는 이 또한 기회로 삼았다. 기업들은 몸집을 줄이고 미래 먹거리를 고민했다. 정부도 각종 규제를 풀며 투자를 독려했다. 혹자는 IMF 위기가 삼성전자와 LG전자, 포스코 등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고 말한다.

올해는 ‘쥐’의 해다. 설화 속 쥐는 지혜롭고 부를 가져다주는 존재로 그려진다. 안갯속으로 접어든 한국 금융업에 쥐의 기운이 전해지길 간절히 바란다. 전통 금융업에서 벗어나 핀테크를 활성화하고,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통해 수익원을 다변화한다면 10여 년 전, 20여 전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위기를 발판 삼아 성장할 것이다.

sunhyun@

사설

성장절벽 경제, 잃어버린 시대 넘어야 한다

2020년 새해다. 어렵고 답답함에 짓눌렸던 작년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마저 버거운 현실이다. 어제까지의 일상이 오늘부터 달라질 게 없으니 미래는 안갯속이다. 국민들은 불안하고 희망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전전긍긍한다. 불확실성이 지배하면서 잃어버린 시대의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것 아닌가 걱정부터 앞선다.

지난해 한국 사회는 정치·경제·안보 뭐 하나 제대로 풀린 것 없이 뒷걸음질만 쳤다. 1년 내내 아수라장 정치판과 사상 최악의 ‘막장 국회’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경제는 추락했다. 집값만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모든 것이 엉망이었다. 작년 성장률은 잘해야 1.9~2.0%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다. 핵을 든 북한의 위협과 도발이 되풀이되는데, 안보의 보루인 한·미동맹은 금가는 소리만 커졌다.

무엇보다 먹고사는 경제가 큰 일이다. 정부는 지난해의 바닥에서 벗어난 올해 2.4% 성장률을 제시했지만, 민간 주체들의 체감은 먹구름이다. 글로벌 컨센서스도 더 낮은 성장을 예상한다. 해외투자은행(IB),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2.3% 수준이다. 2020년 경제지표가 나아진다 해도 경기 반동의 모멘텀으로 보기 어렵다. 워낙 나뒹간 작년의 기저(基底) 효과이고, 오히려 장기침체가 우려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가 1965년 이후 가장 낮은 0.4% 상승에 그침

으로써 최악의 디플레이션에 대한 위기감까지 커지고 있다.

난제인 고용사정도 암담하다. 취업자수, 고용률, 실업률 등의 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착시(錯視)다. 경제현장의 주력인 30~40대 취업자는 2년 이상 계속 줄어들고 있고, 세금 쏟아부어 만든 60대 이상의 초단기 저임금 노인일자리만 급증했다. 중추산업인 제조업과 금융 등의 좋은 일자리도 1년 이상 감소세다. 수출·생산·투자 부진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더구나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대량해고 공포까지 닥쳐오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의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세계 경제 회복은 아직 기대난망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기독교의 분출과 포퓰리즘 정책 또한 경제의 독(毒)이 될 것이다. 개선 기미가 없는 규제의 그물은 성장의 원동력인 기업가정신을 말살하고 있다.

성장절벽과 경기 후퇴의 악순환에 빠져드는 양상이다. 망해가는 경제, 희망이 사라진 사회로 고꾸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문재인 정부 4년차다. 성장엔진을 복원시켜 이 추락의 흐름을 빨리 되돌리지 않으면 경제활력을 살리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기회가 없다. 비상한 각오로 규제의 혁파, 노동시장과 산업구조 개혁,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착각에서부터 벗어나 경제정책의 틀부터 완전히 바꿔야 한다.

세무, 특!

근로소득 증대기업 세액공제 요건

기업의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 중 하나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가 있다.

해당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첫 번째 요건은 평균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에 해당하는데 직전 3년간 평균 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으로서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즉,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고 평균 임금만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평균임금을 초과하여 증가한 임금 증가액의 5%(중견기업의 경우 10%, 중소기업의 경우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두 번째 공제 요건은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킨 경우다.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가 있고,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비하여 크거나 같아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증가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 10%, 중소기업의 경우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사후관리 규정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데 해당 세액공제의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공제 받은 세액이 추징된다는 점을 유의하자.

신생 스타트업의 창업자의 경우 사업이 성장하면서 인적자원 확보 및 인건비 관리가 고민 중 하나일 것이다. 인적자원이 회사의 주요 자원에 해당하는 기술 집약적 스타트업 기업의 경우 동규정을 숙지해 두었다가 인원 충원 의사결정 시 고려해 보자.

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새 해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해를 새해로 맞을 수 없다

내가 새로워져서 인사를 하면
이웃도 새로워진 얼굴을 하고

새로운 내가 되어 거리를 가면
거리도 새로운 모습을 한다

구상 시인의

새 해

중에서

2020년,
언제나 당신을 설레게 하는
새로운 내일을 기원합니다

HYUNDAI
MOTOR GROUP